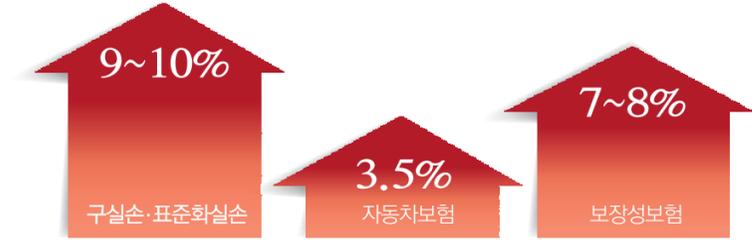


“비례한국당 못쓴다” 선관위 불허 결정 5

삼성 음향 혁신의 산실 ‘美 오디오랩’ 가보니 9

코스피(13일) 2229.26 (+22.87P) 코스닥 679.22 (+6.19P)
환율(달러당 원화) 1156.00 (-5.3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418% (-0.007%P)



보험료 줄줄이 인상 새해 가계 부담 가중

라면·소주·커피·햄버거값 이어
차보험료·실손보험도 인상 예정
보장성보험 3~4월께 올릴 듯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가 이달 말 대형 보험사를 시작으로 최대 3.5% 인상된다. 자동차보험료는 이미 지난해 두 번이나 인상된 데다 의무보험이어서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햄버거, 라면, 커피, 소주 등 생필품이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과 보장성보험료 인상도 예정돼 있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10일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회신을 받고 29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3.5%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우량 소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평균 10%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달 초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빅4’ 손보사가 인상에 합류한다. 현대해상이 3.5%, 삼성화재는 3.3%를 각각 올린다. DB손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의 인상 움직임을 지켜보는 중소 손보사들도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유독 우여곡절이 많았다. 인상률을 낮추려는 금융당국

의 압박이 작용해 제도 개선에 따른 인하 효과(1.2%)를 반영하는 한편 업계가 자구 노력을 더 하기로 하면서 최대 인상률이 3.5% 수준으로 정리됐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숨통이 트일 정도”라며 “상황이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료도 이달부터 최대 9%대 인상한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 한방치료, 도수치료, 백내장 등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하반기 기준 130%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 이후 판매된 신(新) 실손보험료는 같은 폭(9%)으로 내릴 전망이다.

보장성보험료는 3~4월경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예정이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아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현재 업계 평균 예정이율은 2.5%로, 인하는 수준은 0.25%포인트가 유력하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지급보험금을 만들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가 오른다.

업계에서는 0.25%포인트가 오를 경우 보장성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 납부할 보험료는 7~8%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연초 출시되는 일부 신상품을 제외하면 3~4월 개정시점부터 가격 인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연 기자 sij@

한화솔루션, 화학·소재·태양광 ‘통합연구소’



필리핀 화산 폭발...항공기 운항 일시 중단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약 65km 떨어진 바랑카스 지역의 탈(Taal) 화산이 12일(현지시간) 폭발해 화산재와 연기가 치솟고 있다. 필리핀 당국은 최소 6000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피시키고 마닐라 국제공항을 폐쇄했다.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는 화산 경보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는 위험수준으로 분화가 임박할 때 발생한다. 현지 언론과 CNN에 따르면 필리핀 항공 당국이 항공기 운항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항공기 170편 이상이 무더기 결항했다. 비탕가스/로이터연합뉴스

이사회 투자안 통과後 부지 물색
사업별 분산된 R&D역량 통합
소재개발·소비 트렌드 파악 기대

한화솔루션이 석유화학·소재·태양광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연구소’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연구·개발(R&D) 단계부터 큐셀·케미칼·첨단소재 등 3개 사업 부문의 역량을 통합해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3일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수도권 연구소 개발사업 투자’의 건’을 가결한 뒤 현재 연구소 건설 부지를 물색 중이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통합 연구소를 만들기로 하고 몇 군데 부지를 보고 있다”며 “최종 확정된 것은 없는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이달 한화케미칼이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를 흡수 합병해 탄생한 법인이다. 고부가 제품 개발로 도약을 모색하는 석유·소재 사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에 자리 잡은 태양광 사업을 통합한 법인은 사업 간 시너지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영 관리의 효율성까지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사장이 전략부문을 맡으며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현재 케미칼 부문의 R&D는 대전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에서 맡고 있으며, 소재 부문은 세종의 경량복합소재개발센터와 대전의 R&D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부문은 독일에 연구소가 있다.

석유화학과 소재, 태양광 사업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연구소가 들어서면 사업부별로 분산돼 있던 R&D 역량이 한 데 모이면서 연구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따른 소재 개발 등 사업 역량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와 접점이 있는 소재 부문이나 태양광 부문이 이를 케미칼에 전해준다면 기초소재 단계부터 산업의 흐름에 맞는 R&D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GS25, 7호선 편의점 지켰다

10년 운영 40개점 입찰 따내
매장 수 1.4만개로 1위 굳히기

편의점 GS25가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 지하철 7호선 편의점 40개점 방어를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CU(씨유)를 누르고 17년 만에 점포 수 기준 1위에 오른 GS25가 굳히기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14면

13일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서울교통공사의 ‘7호선 수락산역, 상도역 등 40개소 편의점 브랜드’ 입찰에서 275억2738만5600원을 제시해 따냈다. 이들 점포는 지난 10년간 GS25가 운영해 오던 곳이다.

입대 대상 40개소의 총 규모는 1670.29㎡, 평균 점포 규모는 41.75㎡(12.6평)

다. 입대 기간은 5년으로 GS25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입자인 경신 청구 시 최대 5년간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제시한 7호선 40여 개소에 대한 최소 입찰가는 211억7491만2000원(부가세 포함)으로 GS25는 이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다. 입찰에는 GS25와 세븐일레븐이 참여했다. CU(씨유)와 이마트24, 미니스톱은 수익성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다.

GS25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는 점포인 만큼 타 업체에 비해 정확한 수익성 분석이 가능했다”며 “외형 확장보다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GS25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매장 수 1만3899개로 2002년부터 1위를 지켜온 CU(1만3820개)를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친 바 있다. 남주현 기자 joo@

특성화高 취업 수요 입맛대로... ‘엔터리 보고서’ 논란

취업률 3년간 20.3%P 떨어졌는데
‘취업·창업 수요 높아졌다’ 발표
‘잘못된 조사방식에 현실과 괴리’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실과 동떨어진 ‘엔터리’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 당국의 특성화고 활성화 정책 기조에 우호적인 홍보자료를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모순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직능원은 지난달 15일 직업계고등학교를 위한 정책들이 특성화고 등 학생들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학생들의 의식 변화’를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수요가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직능원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에서 졸업 이후 진로계획으로 ‘취업·창업’을 꼽은 비율은 2004년 21.9%에서 2016년 54.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능원의 자체 수요조사시스템인 한국교육고용패널의 3년 전(보고서 발표일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측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직능원의 연구보고서와 실제는 차이가 컸다. 국내 교육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은 2017년 74.9%, 2018년 65.1%, 2019년 54.6%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직능원의 자체 수요조사 방

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기 대한교육법학회장(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은 “직업계고 등 특성화고는 입학 면접을 볼 때부터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 위주로 진로를 결정할 것을(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요구한다”면서 “이 같은 특수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사에 나선 직능원의 일차원적 자체 질의응답 방식이 결국 현장과 괴리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능원 관계자는 “교육통계서비스는 결과를,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의향을 기반으로 한 자료”라면서 “직능원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교육통계서비스는 특성화고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대상) 범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법·원칙 지키는 파수꾼” 삼성 사장단 ‘준법실천’ 서약

속도 내는 이재용식 준법경영 행보

김기남 부회장·김현석 사장·고동진 사장 등 서약서 서명
국내외 제반법규 준수하고 사내 준법문화 확산수범 의지
SDI·생명 등 계열사 순차적 동참 통해 내부 통제 강화키로

삼성전자가 이달 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구성한 데 이어, 13일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준법경영에 대한 철저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새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준법경영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서약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사장단은 준법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으며, 나머지 임원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참했다.

준법실천서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정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서약식은 사장단을 포함한 전 임원이 준법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밝혀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사장단과 전 임원이 서약한 것은 삼성전자의 크든 작든, 조직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 이외에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물산도 회사별로 서약식을 열어 준법실천을 서약했으며, 향후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순차적으로 서약에 동참해 준법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준법 서약은 이재용 부회장이 강조하는 준법 경영 행보의 일환이다. 이 부회장은



김기남(정면 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서 김현석(왼쪽)·고동진(오른쪽) 사장과 함께 준법실천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은 회사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함께 준법경영을 위해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엔 삼성가(家) 롤모델로 알려진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의 마르쿠스 발렌베리 스톡홀름엔스킬다은행(SEB) 회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준법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견해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렌베리그룹은 오너가가 노블레스 오

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삼성은 그동안 발렌베리그룹의 기업 운영방식 등을 일부 벤치마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부회장은 2일 경기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연구소에서 맞은 새해 첫 행보에서 ‘반성’을 경영 화두로 던졌다. 그는 “잘 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

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준법경영 일환으로 삼성은 이달 초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했다.

진보성향 법조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전 대법관)를 포함해 법조, 시민사회, 학계, 회사 네 그룹에서 모두 7명으로 꾸려졌다. 그만큼 객관적으로 준법감시를 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달 중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사회를 거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는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게 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의후원금 지출·내부거래 등 준법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자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송영록 기자 syr@

“글로벌 혁신기술 車로 이동... 경량화 통해 연비 높여야”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대표, CES 2020 참관 영상 유튜브 게재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등 혁신적 서비스가 차(車)를 중심으로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문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과거 CES의 중심은 가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차가 많이 나왔다”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차와 관련된 소재와 부품들에 SK이노

베이션은 주목했다.

SK 부스에 ‘증강현실 체험존’을 설치한 SK아이테크놀로지를 언급하며 김경태 소재사업부장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FCW(Flexible Cover Window) 제작이 주력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등 여러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유기필름 소재”라고 소개했다.

미래 디스플레이 소재인 FCW는 TV, 휴대폰 등 기존 디스플레이 용도뿐만 아니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에서도 핵심 제품으로 꼽힌다. FCW는 자동차 보안을 강



지동섭(왼쪽)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문 대표가 CES 2020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공식 유튜브 캡처

화한 투명 지문 인식 센서, 투명 안테나 등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 구현도 가능하게 하는 소재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관

람객들은 유리처럼 단단하면서도 구부렸을 때 어떻게 깨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많이 표했다”고 전했다.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관계자의 인터뷰도 이어졌다.

SK종합화학 관계자는 “자동차 트렌드에는 경량화, 오토노머스 등이 있다”며 “우리는 라이트 웨이트, 즉 자동차 경량화를 통해 연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친환경·초경량 자동차 내외장재로 사용하는 소재를 전시했다. 차량 구조물, 대시보드, 차량용 범퍼, 도어트림, 타이어 등 미래차에 적용 가능한 소재다.

SK루브리컨츠 관계자도 “배터리에도

운할작용이 들어가야 하는 게 기술적인 팩트”라며 “모터와 기어박스가 하나로 결합한 박스를 청정하고 냉각작용도 잘 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영업 중”이라고 말했다. SK루브리컨츠는 전기차 배터리에 최적화된 윤활유 제품들을 전시했다. 배터리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온도(15~35℃)를 유지하고, 모터시스템의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는 역할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7일부터 10일 4일간 ‘CES 2020’에서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핵심 기술을 모은 ‘SK inside’를 선보였다. 김준 총괄사장은 “이번 CES에서 SK이노베이션의 역량인 ‘SK inside’를 통해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오아시스 역할을 보여 주겠다”며 “SK이노베이션은 E-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준비된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가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혜택' 비교하고... '특약' 속아내고... '가입' 서둘러라

'보험료 절약' 3계명

새해부터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까지 보험료 인상이 예고돼 있다.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소비자들은 '내 월급 빼곤 다 오른다'며 불만을 내고 있다. 어차피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할인 특약을 활용하거나, 보장을 꼼꼼히 비교해 따져보는 게 유리하다.

◇자동차보험, 우량고객 할인은 오히려 높아져 =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소비자 가계에 큰 부담이다. 다만 사고가 많지 않은 우량고객이라면 보험료 인상 영향이 미미하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잦은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실제로 보험사는 우량 소비자를 대상으로 평균 10%가량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과 별도로 우량 고객에 대해 10%의 할인 혜택을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며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험료 줄이기의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다이렉트) 가입이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15% 이상 저렴하다. 또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車보험 온라인 가입엔 15% 저렴 특약 줄인 '착한실손' 최대 9% 싸 생보사 2~3월부터 예정이율 인하 보험, 이달 가입엔 기존 혜택 유지

꼼꼼히 상품을 비교하는 게 좋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활용하면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자신에게 잘 맞는 특약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평소 운전을 자주 하지 않으면 마일리지(주행거리 할인) 특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인기를 끄는 특약은 운전 습관 연계(UBI) 특약이다. IT를 이용해 운전자 습관을 파악·분석한 뒤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

◇병원 자주 안 간다면... '착한실손' 갈아타는 것도 방법 = 병원에 자주 가지 않지만 오래전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면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으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자 2017년 4월부터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최대 30%로 인상한 실손보험을 판매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특약을 줄이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 실손보



실손의료보험 종류별 인상폭

명칭	구실손보험	표준화실손보험	신실손보험(착한실손)
시기	~2009년 9월	2009년 10월~2017년 3월	2017년 4월~
특징	자기부담금 0%	자기부담금 10% 이상 설정 의무화	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보장은 선택 가입, 자기부담금 30%로 설정
변동률	평균 9.8~9.9%	평균 9.8~9.9%	평균 9~10%
인상시기	4월	1월	1월

험 손해율은 평균 70~80%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소비자로서는 때에 따라 유리하다.

신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보험료가 인하됐다. 올해 실손보험료가 9% 선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신실손보험은 최대 9%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도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이 다 다르고, 보험사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달라 무조건 신실손보험으로 옮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의 병원 이용 횟수와 보험료 수준

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생보사 예정이율 인하 압박... '가입 서두르세요' = 보장성 보험료도 조만간 인상이 된다. 한화생명엔 변액, 연금보험은 3월 1일 자부터 0.5% 인하하기로 정했다. 종신 및 기타 보장성보험은 2.5%에서 2.0%로 내린다. 교보생명은 영업 현장에 내달 상품별 예정이율 인하를 개시한다는 계획을 인하고, 4월에는 예정이율을 전격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도 비슷한 시기로 검토 중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돌려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최근 저금리로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 예정이율 역시 낮추는 것이다. 예정이율이 낮다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한다.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면 보험료는 7~8%쯤 오른다. 기존 가입자에게 영향이 없지만, 신규 가입자는 영향을 받는다. 보험 가입을 예정하고 있다면 하루 빨리 가입하는 편이 좋다.

서지연 기자 sjy@정용욱 기자 dragon@

줄줄이 오르는 생활물가



원자재값·최저임금·물류비용 인상 '3중고'

연초부터 '서민 먹거리' 또 들쭉

먹고 살기 팍팍한 한 해가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햄버거, 라면, 커피, 플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연초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최저임금 상승과 물류비용 가중 등이 원인이었다면 향후에는 원재료 가격마저 오르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81.7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4년 평균 지수는 201.8이었으나 2015년부터 160~170대 선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던 지수가 180대를 넘어선 것이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FAO가 주요 농산물인 옥류·유지류·곡물·유제품·설탕 등 5개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지수로, 2002~2004년 식량 가격의 평균을 100으로 설정하고 현재 식량 가격이 기준치보다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식품 외식업계는 수익 악화를 이유로 일제히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코카콜라음료는 코카콜라 250ml 캔 제품 출고가를 4.9% 인상한 것을 비롯해 11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8% 올렸다. 버

거강과 롯데리아는 버거류와 디저트 메뉴를 각각 인상했다. 버거강은 27종의 메뉴를 100~300원 올렸다. 평균인상률은 2.5%다. 롯데리아는 버거류 13종, 디저트류 6종, 드링크류 2종, 차킨류 5종 등 26종을 평균 2% 인상했다. 농심도 동지냉면과 생생우동의 출고가를 각각 12.1%, 9.9% 올렸다.

가격을 올린 식품외식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임차료 등의 상승을 인상 이유로 꼽았다. 다만 제조원가 상승에서 원재료 가격으로 인한 부담 증가는 미미하다고 설명해 상당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가 인상 요인을 암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올 1분기부터 식품 외식 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 지수는 5대 원재료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옥류와 유지류 가격지수가 크게 오르며 소시지, 햄 등 육가공품과 유지류 사용이 많은 차킨전문점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라면업계의 가격 인상도 예상된다. 라면은 대부분이 유당면으로 팜유 사용 비중이 높다. 지난해 말 유지류의 지수 상승을 이끈 품목은 팜유인 만큼 라면 가격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진심을 품은 종신보험
(무배당,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고 싶은
진심으로 꼭 채웠습니다

경제활동기부터 은퇴 후 노후생활까지
사망보장과 생활자금을 균형적으로 보장설계 가능

6대질병 진단시 납입면제
* (무배당) 6대질병 진단시 납입면제 특약 가입시

Shinhan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이러를 함께 하는 따뜻한 보험 신한생명

(1~10일)

새해 수출 '기분 좋은 출발'... 전년 대비 5.3% 증가

반도체 11.5%·석유제품 30.6% 증가 힘 입어 133억 달러
설 연휴로 플러스 전환은 어려워... 내달 '하강 행진' 끊을 듯

새해 첫 달 10일까지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탔다. 지난해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것이다.

다만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설 연휴가 1월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해 조업일수가 2.5일이나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에는 마이너스 행진을 끊고 증가세 전환을 기대했으며 1분기 전체 수출 플러스 전환을 목표로 잡았다.

◇1월 1~10일 수출 133억 달러로 오랜 만에 빨간불=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억6000만 달러) 늘었다. 조업일수(7.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억7000만 달러로,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3% 늘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1.5%, 석유제품이 30.6%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반도체는 최근 단가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수출 물량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승용차(-4.6%), 무선통신기기(-4.8%), 자동차 부품(-9.6%)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11.7%), 일본(6.0%), 홍콩(26.5%), 중동(45.3%) 등은 늘었고 중국(-3.5%), 미국(-12.0%), 유럽연합(EU)(-5.9%) 등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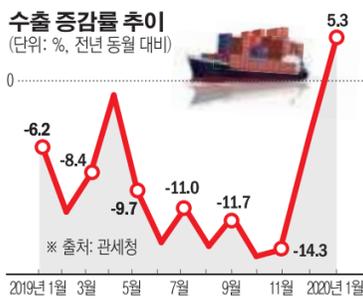
실로 오랜만에 보는 수출 청신호다.

지난해 수출액은 542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수출액이 두 자릿수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2월까지 2018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지난해 1월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영향이 컸다.

지난해 1월 1~10일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최악의 수출 성적을 낸 바 있다. 당시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2%, 26.5% 줄었고, 전체 수출 실적은 7.5% 감소했다.

◇1월 설 연휴 탓 플러스 전환 어려워...



2월에는 연속 마이너스 기록 끊는다=10일까지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1월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2월이던 설 연휴가 올해는 1월에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고려한 1월 조업일수는 21.5일이다. 지난해에는 2월에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조업일수가 24일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2.5일이 부족하다. 통상 1일 조업일수에 따른 수출액은 20억 달러 수준이다. 단순 비교하면 50억 달러가 부족해진다.

정부는 2월에는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월은 조업 일수가 22.5일로 작년보다 3.5일 늘어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두 합쳐 1분기를 플러스로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10세 미만 아동에 건물 증여 52% '쑥'

증여재산가액 819억... 249명은 5억 초과

국세청, 편법 증여 엄정 대응

국세청이 매년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세 미만 아동에게 고가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 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건당 평균 1억 7834만 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이는 직전 전년도와 비교할 때 결정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 2200만 원)은 전년(308명·448억 1500만 원)과 비교해 무려 51.95%, 82.8%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은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었다.

이 밖에도 나이 어린 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와 함께 부부간 증여도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2018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모두 3907건, 이들의 '증여재산가액'은 3조4005억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년 전(3000건·2조8745억8100만 원)보다 30.23%, 18.3%씩 늘어난 것이다.

'증여재산가액' 등 항목은 해당 연도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분할 증여재산까지 모두 더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도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와 전관 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신년인사회 찾은 구현모 KT 새 CEO
대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KT의 차기 CEO로 내정된 구현모(오른쪽) 사장이 1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0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서상기(왼쪽) 전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이르면 이번주 '데이터 경제 TF' 출범

내달 종합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른 TF와의 연계로 일정이 미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간단한 사안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출범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TF에선 다음 달까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과제, 전문인력 양성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 처리 지연을 전제로 준비했던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인 '마이데이터' 시범사업도 계획대

로 추진한다. 전자가 데이터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이라면, 후자는 단기적으로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다.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이 중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의 분석·활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보건·의료 분야에선 특정 질환이나 신체적 특성을 가진 사람의 합병증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 분야에선 고객들의 소비·투자 패턴을 활용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이 처리됐으니,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20대 후반'이 실업자의 21.6%... 7년째 OECD 1위

대기업 선호 中 小 중 취직 꺼려

우리나라 실업자 10명 중 2명(21.6%)은 20대 후반(25~2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7년째 1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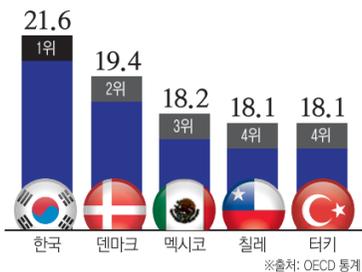
13일 OECD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전체 실업자에서 25~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는 덴마크(19.4%), 3위는 멕시코(18.2%)였다. 미국은 13.0%, 일본은 12.6%였다.

특히 한국은 2012년(20.2%) 이후 7년째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 비중이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20대 후반일 정도로 실업 문제는 이들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25~29세 실업자 비중

(단위: %, *OECD 15세 이상 실업자 중)



커 청년들이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며 기업 입장에서 대졸 초임이 높고 노동 유연성은 낮아 신규 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2017년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17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23만 원으로 대기업(488만 원)의 45.7%에 불과했다. 또 첫 직장의 규모가

향후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적인 현실도 크게 작용한다. 20대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4년제 대졸 남성이 첫 직장에서 평균 임금보다 10% 높게 받는 경우 9~10년 차에도 4.4%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 종사자보다 1~2년 차 때 약 13% 높은 임금을 받았고, 9~10년 차에도 9% 정도 많은 임금을 받았다. 또 첫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면 1~2년 차 때 임금이 임시·일용직인 경우보다 약 14% 높았다. 9~10년 차가 되면 약 15% 많았다.

KDI는 "청년취업인턴제나 취업성공패키지처럼 단기 실직 위주의 청년 고용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작년 구직급여 지급액 첫 8조 돌파

고용보험 가입자수 51만명 증가

지난해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한 구직급여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 원으로 전년(4753억 원)보다 27.0% 늘었다.

이로써 작년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6조4549억 원)보다 25.4% 늘어난 8조91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처음(연간 기준)으로 8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고용부는 작년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명으로 전년(37만6000명)보다 11.4% 늘었다.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15.7%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 원이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 명(3.9%)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07년(5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비례한국당’ 못 쓴다

선관위 회의 열어 불허 결정 “유사명칭 사용금지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위성 정당을 추진했다. 기존 소선거구 선거만으로도 당 지지율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의석수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4·15 총선에 적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위성 정

당을 추진하면 두 당이 기술적으로 같은 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당이기 때문에 의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전략이다.

그러나 ‘비례자유한국당’이 불허되면서 이 당을 비례대표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올리려던 한국당의 선거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은 원영섭 조직부총장 부인을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올리는 등 ‘비례용 위성 정당’ 전략을 차근차근 밟아 왔다. 아울러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의 당적을 옮기는 방안 등도 검토했지만, 선관위의 결정으로 애초에 불가능해졌다.

범여권은 ‘비례○○당’이란 명칭이 기존 정당과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인식의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 명칭을 사용해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 민의를 왜곡한 가짜 정당이자 한국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이 ‘정권 편들기’라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

한국당·새보수당 ‘탄핵의 강’ 건너 통합 이룰까

한국 “범보수 모두 통합”... 새보수 “한국당만 통합 대상” 통합 대상 두고 양당 시각차... 혁통위 활동 진통 예상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13일 4·15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통합 대화의 첫 발을 떼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다만 새로운보수당과 한국당이 혁신통합 대상에 시각차를 보이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저희도 동의한 6대 원칙이 반영돼 있다”며 “통합 대의 앞에 함께 스스로 내려놓고 국민 뜻을 받아들여 한 다”고 말했다.

앞서 새보수당은 유승민 위원장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인 △탄핵의 강을 건너 자 △개혁 보수를 추구하자 △남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에 대해 황 대표가 확답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한국당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황 대표가 간접적으로 새보수당의 3원칙 요구 수용 의사를 전하자 하태경 새보

수당 책임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재건과 혁신통합으로의 한걸음 전진이라고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하 책임대표는 “앞으로 한국당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보수재건 3원칙이 포함된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양당간에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황 대표가 ‘보수통합기’를 만들자고 제안한 지 2개월여 만에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면서 총선을 불과 석 달 남은 시점에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합 대상에 대해 양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합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보수당은 보수 정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거리를 두면서 한국당과 시각차를 보였다. 새보수당은 “우리의 통합 대상은 한국당 하나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대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만드는 모든 분’을 통합 대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하 책임대표는 “혁통위는 자문기구이고, 혁신적 보수통합이 잘될까 걱정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만 했다.

이를 두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과의 통합은 겁데기다. 한국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새보수당과의 통합은) 분명히 핏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 논의 공식화에도 혁통위 활동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은 늦어도 내달 10일에는 통합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선 논의가 시급하지만 이날 열릴 것으로 예상했던 첫 공식회의도 다음 날로 미뤄졌다.

유승민 위원장은 회의에서 “보수가 제대로 거듭나고 재건되는 모습을 저희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보수당을 창당한 것이지만 한국당에 팔아먹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위원들과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

고민정 靑 대변인 총선 출마 가닥

광진구·고양시 거론

고민정(사진) 청와대 대변인이 곧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4·15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가 어느 지역에 출마표를 던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14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 정까지만 수행한 뒤 대변인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16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여권에서는 고 대변인의 총선 출마 의지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며, 지역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변인 자신도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대변인이 총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심 중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이 출마할 경우 지역구는 최근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 정 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 병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



는 상황이다.

당초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항마로도 거론됐지만 현재로서는 나 의원과 대결보다는 다른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민주당 내에서 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이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표를 던진 서울 광진 을에 고 대변인을 대항마로 내세우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 을과 서초 갑은 각각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와 이해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의 지역구다.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두 지역 모두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전략 공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아직 영입 인재들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배치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고 대변인의 출마지역은 시간을 두고 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환 기자 whan@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YES

필승 코리아 펀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을 이기게 만드는 일!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무역 여건 변화에 따라 미래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산업에 투자합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선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운용 보수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지원합니다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수수료 외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3537호 (2019.09.03 ~ 2020.09.02) ※ 환매방법 :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 2(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4)영업일에 지급 ※ 보수 및 수수료 : Class A : 총보수 0.877% (판매 0.340%, 운용 0.500%, 기타 0.037%), 납입금액의 0.5% 이내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펀드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 운용회사 : NH-Amundi자산운용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설 자리 좁아진 소형車 日 업계 해외사업 축소

시장 주류, SUV 대형차로 이동 신흥국 고급차 선호·미진 하락에 혼다, 내년 美 소형차 판매 중단

일본 자동차 업계가 자신들이 강점을 보였던 소형차 시장이 둔화하면서 비상 사태에 빠졌다.

세계 2위 규모인 미국 시장의 주류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대형차로 이동하고 신흥국의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글로벌 소형차 수요가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에 일본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소형차 분야에서 해외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혼다는 오는 2021년 미국에서 소형차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차종을 줄일 계획이다. 닛산도 신흥국에서 소형차 브랜드를 축소하는 등 일본 업체들은 현재 '선택과 집중'을 강요당하는 상태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공간이 제한되는 소형차는 부품 배치 등의 설계가 어렵다. 그만큼 일본 업체들은 강한 기술력을 배경으로 이 부문을 지배해왔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소형차 판매 대수는 2415만 대였는데 일본 업체가 40% 점유율을 차지했다. 신차 전체에서 일본 비중이 약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형차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이 계속됐던 글로벌 소형차 시장은 2010년대에는 보합세로 성장이 멈췄으며 앞으로도 잡아야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혼다는 주력 소형차인 '피트' 신 모델을 2월 일본에서 출시하지만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출시를 미루고 현행 모델 판매도 2021년에는 끝낼 계획이다. 또 미국 시장에서 소형 SUV인 'HR-V'도 내년 전면 개량하면서 대형화한다. 미국 시장은 SUV나 픽업트럭 등 대형차가 지난해 신차 판매의 약 70%를 차지했다.



신흥국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저가인 소형차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소형차 '아리스해치백'을 마쓰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급으로 전환, 미국 소형차 자체 생산을 아예 중단했다.

닛산도 자사 소형차 개발을 축소하는 대신 파트너인 르노와 미쓰비시자동차와의 협업으로 이를 대신할 계획이다. 소형차 중심의 신흥국 브랜드 '닛산'은 러시아와 동남아 시장에서 철수한다.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의 부상도 소형차 입지를 갈수록 좁게 하고 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버테크놀로지나 그랩 등 차량공유 업체들의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채산성에서도 소형차는 중대형차를 따라잡지 못한다. 혼다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대형차 중심인 '경트럭' 부분의 대당 매출총이익은 전체 대비 평균 약 35% 높았지만 세단과 소형차가 속한 '승용차' 부문은 약 20% 낮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차세대 기술이 상용화하면 소형차는 수익성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 브레이크 등의 안전 지원 기능과 고가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소형차는 마진이 제한돼 있어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밥 먹으러 주유소 간다”... 맛집 된 美 편의점

햄버거·치킨 등 다양한 메뉴... 맥도날드·KFC 등 위협

“배가 너무 고프다. 주유소에서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을 정도야.”

1983년 나온 미국 유명 코미디 영화 ‘내셔널 램퐁스 휴가’ (National Lampoon’s Vacation)에서 나온 농담이다. 30여 년 전만 해도 우스갯소리에 불과했던 이 일이 최근 미국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와와’ (Wawa), ‘퀵트립’ (QuickTrip) 등 미국의 주유소 편의점들이 식사 세트, 샐러드, 키트 스낵, 콤팩트나 에스프레소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가 분석했다.

편의점 체인들이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신개념 ‘레스토랑’으로 변신하면서 기존 패스트푸드점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편의점 체인은 레스토랑 출신의 경영진을 고용하는가 하면, 매장 내 주방에서 제공하는 스낵과 준비된 음식을 늘리는 추세다.

실제로 주유소 편의점 쉬츠(Sheetz)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이뤄지는 주문에 맞춰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판매한다. 에

스프레소 바까지 갖춘 쉬츠의 최대 경쟁사는 이제 편의점이 아닌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날드다. 쉬츠는 맞춤형 샌드위치와 함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주유소를 갖춘 대형 편의점 퀵트립 역시 계란, 우유뿐만 아니라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까지 팔고 있다. 또 다른 편의점 체인 와와도 최근 커스텀 샐러드, 아티산 샌드위치, 유기농 커피 등을 판매 메뉴에 추가했다. 미국 중서부 최대 편의점체인인 케이시제너럴스토어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피자 체인점 중 하나가 됐다.

이들 편의점이 식생활화 배경에는 미국인의 식습관 및 생활방식의 변화가 있다. 한 끼 식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보다는 가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4분 미만인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퀵트립의 리더십 개발 전문가인 칼 릭은 “사람들은 예전처럼 밤에 한 끼를 위해 꼬박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러한 ‘편의

미국 편의점 전체 매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쉬츠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트래비스 쉬츠는 “우리의 식음료 사업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며 “이들은 주유소에서 먹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마존닷컴 등 온라인 쇼핑의 발전으로 다른 소매업체가 고전하는 가운데 편의점은 나홀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전미편의점협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편의점 매장 수는 28%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편의점 매장 매출은 약 30% 늘어났다.

변효선 기자 hsbun@



사우디 방문 아베 “중동 긴장 완화” 촉구 중동을 순방 중인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사우디 국왕은 물론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중동 긴장 완화를 위해 관련 국가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우디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을 잇따라 방문한 후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리야드/AP연합뉴스

닛산, 카를로스 곤 탈출이 기회? ‘르노와 결별’ 비상계획 추진

닛산자동차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일본 탈출을 기회로 프랑스 르노와 결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닛산 고위 경영진은 엔지니어링과 제조 부문의 완전한 분리, 닛산 이사회 구성원 변경 등 르노와의 잠재적인 분리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세웠으며 곤 전 회장의 극적인 탈출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곤 체제 아래 20년 가까이 지속됐던 르노·닛산 연합이 깨질 수 있다는 최신 신호라고 FT는 강조했다.

닛산이 결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사보다 덩치가 작은 르노에 항상 끌려다니는 것은 물론 합병 이야기까지 나오는 현 상황이 탐탁지 않기 때문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르노·닛산 연합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000만 대에 달하지만 많은 닛산 고위층은 르노가 자사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판매 감소와 전기차 등 차세대 기술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고전하는 상황에서 양사가 완전히 갈라 서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FT는 지적했다.

특히 닛산의 분리 움직임은 경쟁사들이 어떻게든 손을 잡아 덩치를 키우려는 업계 상황과도 대조된다.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과 PSA가 합병을 진행 중이며 폭스바겐과 포드도 자체 연합을 구축하고 있다.

닛산이 르노와 결별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 르노는 닛산 지분 43.4%를, 닛산은 르노 지분 1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또 르노와 르노 최대 주주인 프랑스 정부는 양사가 지금처럼 어중간한 연합 관계가 아니라 합병하기를 원하고 있다. 장 도미니크 세나르 르노 회장은 수주 안에 양사 연합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양사의 구매·조달 기능은 완전히 통합된 상태이며 닛산이 출시할 신차종 일부는 르노와 공동 개발한 플랫폼을 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印, 글로벌 전기車 격전지 부상

“10년 안에 내연車 퇴출”...국내의 업체 잇따라 제품 출시

전기자동차 시대에 대한 인도의 야심이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

인도 정부는 3년 전 “2030년까지 내연 기관 차량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시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만큼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 그러나 목표 달성 기한을 10년 앞둔 올해, 전기차 신모델이 속속 출시되는 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인도에서 새 전기차 출시가 잇따를 전망이다. 중국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모터는 이달 인도 5개 도시에서 전기차를 출시한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의 예약 접수도 이미 시작했다. MG모터 인도법인인 “지금까지 인도에 없었던 제품이기에 경쟁력 확보에 자신 있

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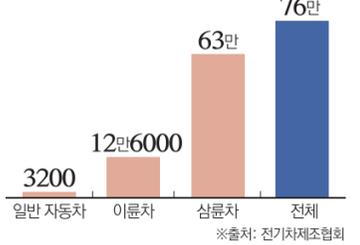
닛산의 전기차 ‘리프’도 올해 인도에서 출시가 예상된다. 승용차 판매 점유율 2위인 한국 현대자동차는 한발 앞서 지난해 7월 전기차 SUV를 선보였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300대 이상이 출고됐다.

독일 아우디와 포르쉐도 전기차를 선보일 전망이다.

인도 토종기업들도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타타자동차는 1월에 SUV ‘넥슨’을 출시할 예정이다. 가격은 150만~170만 루피(2400만~2700만 원)다. 타타의 영국 자회사 재규어랜드로버가 올해 말 재규어 브랜드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인도 자동차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 스즈키자동차의 인도 자회사인 마루티스즈키의 전기차 출시는 미정이다. 애초 올해를 목표로 소형 전

2019년 인도 전기차 판매량 (단위: 대)



기차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멀티스즈키는 충전소가 부족하고 전기차 가격이 아직 높은 점을 그 배경으로 지적했다. 수요 동향을 감안해 전기차 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지난해 4월 전기차 보급 촉진 보조금으로 2022년 3월까지 1000억 루피를 투입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대기 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전기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뉴델리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 영향으로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1월 1일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접수 시작!

신청접수

2020.1.1.부터 상시접수

신청자격

서울시민 또는 서울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대출 후 1개월 이내)
부부합산 소득 9,700만원 이하(기존 8,000만원에서 완화)
신혼기간 7년 이내(기존 5년에서 확대)

지원방식

융자금 이차지원(금리 최대 연3.6%까지)
지원기간 최장 10년(기존 8년에서 연장)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수문의

02)120

대출문의

국민은행(1599-9999), 하나은행(1599-2222), 신한은행(1599-8000)

내게 맞는 모든 주택정보를 한 곳에서!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금감원 “중징계 불가피” DLF 제재심 ‘D-2’ CEO 징계수위 공방전 은행 “법적 근거 불명확”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번주 개최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사전 통보된 중징계 안이 확정될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내부통제 문제로 규정하고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KEB하나은행은 제재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CEO 아니면 누가 책임?” vs “제재 근거 불명확” = 제재심은 재판과 비슷하다.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제재심 위원들이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사안이 엄중

금감원 “경영진 모를 가능성 낮아” 삼성證 배당사고 해임 권고 전력 하나銀, 서류 삭제 사건도 불리 “과도한 영업·내부통제 부실 발단”

한 데다, 은행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제재심은 30일 한 차례 더 열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관심은 이들 CEO에 대한 제재 수위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대형 로펌과 손잡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 은행들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내부

통제기준은 기관이 마련하고, 준수 여부는 준법감시인이 한다. 규정만 놓고 보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CEO를 제재하기 어렵다. 더욱이 은행들은 상품 판매 결정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한 만큼, CEO에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함 부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개별적 상품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기관장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때도 같은 이유를 들어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해임 권고를 내렸다. 게다가 KEB하나은행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서류를 삭제한 사실은 은행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

은행 “기관장 책임 없어” 상품 판매결정 부서장 전결 처리 내부통제 점검은 준법감시인 몫 지배구조법 기반 제재 근거 부족

롯됐다”며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CEO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 연임, 징계 효력 시점이 관건 = 이번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건 손 회장의 연임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제재심 효력 발생 시점이다. 지난달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단독 후보에 오른 손 회장은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된다. 만약

제재심 결론이 늦게 내려지거나, 징계안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주총 이후에 열린다면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총 이전 결론이 나면 손 회장 연임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그가 낼 수 있는 카드는 행정 소송이 유일하다. 지난해 삼바 사태 당시 법원은 제재 집행지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도 우리금융이 행정소송을 내면 인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다만 우리금융이 소송에 나서면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우리금융은 증권·보험사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인허가권을 지닌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국민銀, 미안마 한국어 시험장 건물 기부 KB국민은행은 미안마 노동부에 한국어 CBT(Computer-based Test) 시험장 신축 건물을 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창수(왼쪽 세 번째)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 도 모모 수찌(가운데) 미안마 양공주 노동부 장관, 우모 아웅 미안마 노동부 차관, 이상화 주미안마 한국대사가 10일 미안마 양공에서 열린 ‘한국어 CBT 시험장’ 착공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패트릭 윤 비자코리아 대표 ‘신년간담회’ “60년간 쌓은 노하우 활용 빅데이터·컨설팅 역량 강화”

“간편결제사와 경쟁보다 협업 안전한 시스템 제공 최선”

“비자는 따지고 보면 60년 전 최초의 핀테크 기업입니다. 비자만의 경험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패트릭 윤 비자코리아 대표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비자코리아의 주요 사업은 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 컨설팅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는 윤 대표와 이주연 부사장, 유창우 상무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윤 대표는 “비자는 글로벌 역량을 한국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일단 고객사와 파트너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고 이제 결제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비자는 전 세계적으로 1분당 400만 개의 결제 정보를 처리한다”며 “이를 통해 분석 복잡도와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유·무형의 가치를 만들 수 있고, 현황 분석과 현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진단 분석과 예측 등 비자만의 독보적인 경험을 활용해서 다양한 가치를 고객과 같이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비자 토큰 서비스와 법인 전용 해외 송금서비스 출시, 비자 커넥트를 통한 개인 송금, 디지털 파트너십 지원 등 사업을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와 협업에 대해서는 “비자는 최근 미래에셋 센트럴빌딩으



패트릭 윤 사장이 1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비자코리아

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이는 비자 이노베이션 스테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카드사와 핀테크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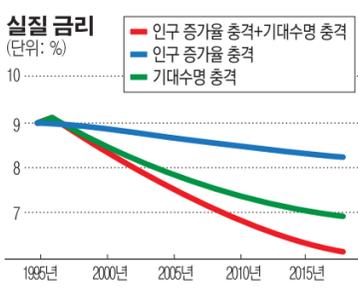
그러면서 “한국 핀테크 산업이 아시아에서 더 확장되고 이를 통해 경제 개발과 한국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할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에 대해 비자는 경쟁이 아닌 협업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표는 “우리는 (간편결제 회사들)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며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결제 시스템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고령화가 끌어내린 실질금리... 20년간 3%p ‘뚝’

하락폭 OECD의 2배 수준 기대수명 증가가 2%p 낮춰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고령화가 실질금리를 3%포인트가량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실질금리 하락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두 배가량 큰 폭이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소 권오익 부연구위원과 국제경제연구소 김명현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실질금리 변화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1995년 약 9%에서 2018년 약 6%로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실질금리가 9% 수준에서 0.4%가량으로 떨어진 것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구조 변화가 균형 실질금리를 약 1.5%포인트 하락시켰다는 2016년 외국 선행연구와 단순 비교할 경우 두 배나 큰 수준이다.

여기서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인 통화안정증권(통안채) 1년물을 물가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을 차감해 계산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노령인구 부양비율로 본 기대수명 증가는 실질금리를 2%포인트 떨어뜨렸다. 유엔(U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부양비율은 1995년 9.6%에서 2015년 19.4%로 급증한 바 있다. 기대수명 역시 1995~2000년 74.95세에서 2015~2020년 82.44세로 늘었다.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본 인구 증가율 감소는 실질금리를 1%포인트 하락시켰다.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은 1.05%에서 0.41%로 급감했다.

결국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미친 영향이 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른 영향보다 두 배 정도 컸다. 이는 은퇴 이후 생존기간이 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 설명된다.

인구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실질금리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봤다. 다만, 기대수명 증가나 인구 증가율 감소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여 실질금리 하락 속도도 완만해질 것으로 봤다. 실제 70세를 넘어 80세를 돌파하는 데까지 30년이 걸렸던 기대수명 증가세는 90세를 돌파하기까지는 5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오익 부연구위원은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가 같은 기간 관찰된 실질금리 하락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다”며 “인구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실질금리가 현 수준에 비해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질금리 하락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기대수명이 크게 늘지 않을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한화생명 “노사, 소통경영으로 미래 준비”

2020 노사화합 선포식 개최

한화생명은 13일 63빌딩에서 2020년 노사화합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는 여승주 대표이사와 김태갑 노동조합위원장, 양승철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부장 등 노사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실천 및 노사상생’의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여승주 사장과 김태갑 위원장은 이번 노사화합 공동선

언을 통해 한화생명의 화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대내외에 선포하며 2020년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신뢰를 통한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초일류 보험사를 향한 지속적 혁신 추진’, ‘각자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의식 기반의 기업문화 정착’의 내용을 담았다.

서지연 기자 sjy@

카뱅, 작년 증금리대출 1兆 공급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조 원에 달하는 증금리대출을 공급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785억 원의 증금리대출을 공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8922억 원) 대비 110%에 달하는 규모다.

상품별로는 정책대출인 사잇돌대출이

9165억 원, 민간대출인 증신용대출이 620억 원이다. 사잇돌대출의 평균 금리는 5.99%, 증신용대출은 5.62%로 각각 집계됐다.

사잇돌대출 금리의 경우 시중은행 평균금리인 6.94%보다 95bp 낮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도 약 1조 원 가량의 증금리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이곳, 삼성 음향 혁신의 산실

미국 LA 인근의 삼성 오디오랩 무향실 등 세계 최고 시스템 갖춰 업계 첫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바 360도 전방위 입체음향 등 구현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산하 음향 기술 전문 연구소 오디오랩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사방이 뾰족한 세모의 구조물들로 가득 찬 이곳은 세상에서 소리를 가장 잘 흡수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발렌시아에 자리잡은 삼성전자 미국리서치 오디오랩을 방문했다.

이곳은 '삼성 사운드 기술의 산실'로 약 1600㎡(484평) 규모의 공간에 무향실(Anechoic Chambers), 청음실(Listening Rooms) 등의 응용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무향실은 삼성 오디오랩의 자랑이다. 두께 30cm의 거대한 철제문이 열리고 문 안쪽으로 들어가니 뾰족한 세모 구조물들이 짙게 들어차 있다.

귀도 먹먹했다. 무향실에 대해 설명하는 앨런 드벤처어 오디오랩 상무의 목소리는 베개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바닥까지 가득 찬 이 세모 구조물은 유리섬유로 만들어져 소리 흡수가 더욱 잘된다.

세모 모양으로 만든 이유를 묻자 직원은 "소리가 일반 벽에 들어오면 99% 흡수 후 1% 반사되는 경험을 한 번밖에 못하지만 지그재그로 이뤄진 삼각형 안에서는 99%



앨런 드벤처어 삼성 리서치 오디오랩 상무가 오디오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디오랩의 '무향실' (왼쪽)은 사방이 세모 모양의 구조물로 소리를 99% 흡수한다. 오른쪽은 오디오랩 외관. 사진제공 삼성전자

흡수, 1% 반사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회사 제품과 블라인드 테스트가 가능한 곳도 있다. 삼성 TV와 경쟁사 TV 두 대가 암벽커튼으로 가려진 터널에서 돌아갔다. 벽 자체가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디자인을 해 모든 제품이 같은 위치에서 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

드벤처어 상무는 "이곳에서는 (제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곳엔 20여 명의 오디오 관련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음향 관련 석박사 학위를 갖추고 있으며, 8명은 엔지니어인 동시에 현재 밴드 활동을 하는 뮤지션이기도 하다.

드벤처어 상무는 하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 2013년 오디오랩이 탄생할 당시 이곳에 합류했다.

그는 "이곳의 챔버와 측정시스템은 세계 1등이라고 자부한다"며 "하만에서 워낙 오래 일해서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삼성 오디오랩이 개발에 참여한 첫 제품은 2015년 CES에서 공개한 '무지향성 무선 360오디오'다. 해당 제품은 어떤 공간에 위치하더라도 360도 전방위 입체음향을 구현하고,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오디오 시장 트렌드를 이끌었다.

다음 제품은 사운드바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4K 화질에 걸맞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서라운드 사운드 경험을 가정에서 구현하는 것은 먼 미래로 보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상향 스피커를 본체 및 별도 분리형의 후방 스피커에 내재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바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상하좌우에서 쏟아지는 듯한 멀티 채널 사운드를 구현했다.

2020년형 QLED 8K에 적용된 사운드 관련 신기술에도 오디오랩의 연구 성과가 그대로 적용됐다. 영상 속 움직이는 사물을 인식해 사운드가 TV에 탑재된 스피커를 따라 움직이는 OTS(Object

Tracking Sound Plus) 2020년형 QLED 8K 신제품은 화질뿐 아니라 사운드에서도 진일보했다. 'OTS'는 영상 속 움직이는 사물을 인식해 사운드가 TV에 탑재된 스피커들을 따라 움직이는 기술이다. TV만으로도 5.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구현이 가능해져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 등 화면에 움직임이 있을 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할 수 있게 해 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디오랩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음향 기술을 선도하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TV 사운드 기술과 오디오 제품 간의 시너지를 통해 삼성전자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렌시아(미국)=송영록 기자 syr@

‘메이크 잇 이지’ 위니아 새 슬로건

대우위니아그룹의 가전계열사인 위니아닷컴·위니아대우는 13일 대표 가전 브랜드 위니아(WINIA)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메이크 잇 이지(MAKE IT EASY)’를 발표했다.

새로운 슬로건에는 위니아의 본질적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다. 대우위니아그룹 관계자는 "위니아가 규정한 가전제품의 본질적 가치는 편리함"이라며 "브랜드 핵심 정체성은 가전의 본질인 사용하기 편하고 믿음직한 제품력으로 삶을 개선해 가치를 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위니아그룹은 새 슬로건으로 가전제품의 본질에 강한 브랜드가 바로 위니아임을 내세우며 브랜드 정체성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경부고속도로 청계천 부근에 브랜드 슬로건을 반영한 야립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대우위니아그룹 관계자는 "고객의 삶을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하는 기업으로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세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위니아그룹은 신규 슬로건 론칭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페이스북 위니아스토리 채널의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MAKE IT EASY' 문구를 작성하면 응모된다. 23일까지 진행하며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음료를 증정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모빌리티 사업 구상단계 넘어 지상 이동형 플랫폼 이미 제작”

현대모비스, CES서 밝혀 현대차 항공 모빌리티와 연결 M&A 투자, 매출 10%로 확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그룹 차원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전략 일부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 구상 단계를 넘어 사업 '초기 단계'에 진입한 만큼 경쟁사와의 차별화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을 통해 그룹 차원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 구상 단계를 넘어 이미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고영석(사진) 현대모비스 기획실장(상무)은 이날 현지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항공 모빌리티에서 이어지는 지상 이동 수단인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Purpose Built Vehicle)'가 모비스와 직결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개한 M비전-S가 PBV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미래 전략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은 하늘을 나는 개인형 비행체 PAV를 기반으로 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Urban Air Mobility)'와 지상 이동 수단인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허브(HUB)'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모비스는 이 가운데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PBV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셈이다. 고 실장은 "(현대모비스) 모듈 연구소에서 PBV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알루미늄 보디로 제작한 상태"라며 "그룹 차원의 미래 전략인 PBV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항공 산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항공 모빌리티의 경우 현대차그룹이 처음 뛰어든 분야인 만큼,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항공사를 상대로 한 인수 합병(M&A) 가능성도 제기됐다. 모비스는 이에 대해 UAM과 관련된 모비스 전략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M&A를 포함해 '모비스 항공사업 출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대모비스는 장기적 재투자 방향성도 공개했다. 전체 매출 가운데 7% 수준인 M&A 재투자를 장기적으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고 실장은 "2019년 상반기 기준 모비스 보유 현금 이 7조4000억 원 수준"이라며 "향후 3년 뒤에 약 1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 새 폴더블폰 이름 '갤 Z 플립'?

외신, IT 인플루언서 인용 보도 내달 11일 갤럭시S20과 동시 공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에 대한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갤럭시 Z 플립(Flip)'이 브랜드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나인투파이버구글 등 외신은 IT 관련 유명 인플루언서 '아이스 유니버스(Ice universe)'의 발언을 인용해 삼성의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후속작은 갤럭시 Z 플립으로 출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갤럭시 블룸(Bloom)이 차기 폴더블폰 브랜드명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는 것이다. 블룸은 그동안 갤럭시 폴드 코드명(프로젝트 이름)으로 알려진 이름이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신제품을 다음 달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0과 함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폴더블폰 신제품은 화면 양옆이 접히는 갤럭시 폴드와 달리 위아래로 접을 수 있는 '클램셸(조개껍데기)' 디자인의 제품이다. 외신에 따르면 폴더블폰 신제품은 접었을 때 정사각형에 가깝고, 펼치면 6.7인치 화면이 된다. 기존 갤럭시 폴드와 비교했을 때 휴대성이 향상됐다.

신제품에는 상단 중앙 카메라를 남기고 전체를 화면으로 채운 홀 디스플레이와 후면 듀얼 카메라를 적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면(접었을 때 전면)에는 듀얼(2개) 카메라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에는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CPI)보다 스크래치에 강한 초박막유리(UTG)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865를 도입하고, 램(RAM)은 최대 12GB(기가바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갤럭시 폴드(239만8000원)보다 저렴한 100만 원대 중후반으로 낮춰진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현대차, 협력사 납품대금 1兆 조기 지급

현대자동차그룹이 설을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해 상생 활동에 나선다.

13일 현대차그룹은 설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73억 원을 예정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온누리상품권 약 117억9000만 원어치를 구매해 설 연휴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설맞이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 동안 소외이웃 및 결연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차는 물론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위아 등 6개 회사에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협력사들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앞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르노삼성 “시청으로”... 기아차 “파업 돌입”... 쌍용차 “복직 강행” 새해 벽두부터 노사 갈등 몸살 앓는 후업계

자동차 업계가 연초부터 노사 대립으로 대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해결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을 해를 넘겨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10일 서울 상경 투쟁을 벌인 데 이어 13일엔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시의 역할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르노삼성은 부산 시민이 살린 향토기업”이라며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 지역경제 피해 확산을 막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르노삼성을 방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조가 말하는 노동 강도 등의 부분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노사 간의 원활한 협상을 촉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9월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본급 인상을 놓고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을 8%(약 15만 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



르노삼성 노조가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르노삼성 기본급 인상 이전에 ‘장의 집회’·‘게릴라 파업’ 기아차 조합원 합의 거부... 쌍용차 복직유예자 출근투쟁

측은 고정비용 증가에 난색을 보이며 대신 600만 원의 성과급과 위로금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게릴라 파업’에 나섰다. 기존처럼 모든 조합원에 파업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파업에 참여할

공정을 당일 아침에 지정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생산은 한 공정에만 차질이 생겨도 전체 생산에 타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사측은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을 미리 파악해 생산 공정에 재배치하는 방식

으로 생산을 이어왔다. 이에 사측은 부분 직장 폐쇄로 맞섰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공장 출입을 막고, 파업 불참자만 생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노조의 전술을 피해 간 것이다. 현재 사측은 파업을 거부한 80%가량의 조합원을 모아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르노삼성 노사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데에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는 점이 한몫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지난 5년간 1조3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지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아니고 재투자에 투입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2018년의 영업이익 3500억 원 중 ‘닛산 로그’로 인한 이익이 1800억 원인데, 로그 생산이 중단되며 이 부분이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닛산 로그의 위탁 생산은 지난해 9월 끝났다. 사측은 르노 본사로부터 신형 XM3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부분 직장 폐쇄를 통해서라도 공장을 돌리고 있지만, 배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여전히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 짓지 못한 가운데,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3일부터 17일까지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10월 기본급

4만 원 인상과 성과·격려금 150% 및 320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 지도부가 사측과 합의했지만, 조합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의 반대 의사를 확인한 만큼 기존 합의안 이상을 얻어내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회사가 추가안을 내지 않으면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의 뜻이 분명한 만큼, 기존 잠정안보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노·노·사 간의 다소 복잡할 갈등을 빚고 있다. 쌍용차 안에는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두 개의 노조가 있다. 대표노조인 기업노조는 회사와 10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갔지만, 해고자 복직 문제로 금속노조 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겪은 쌍용차는 2018년 두 노조와 ‘2018년 말까지 정리해고 노동자 60%를 복직 및 나머지 46명은 2019년 말까지 채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46명에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유급휴직’을 통보한 상태다.

현재 46명의 금속노조 지부 소속 조합원은 일이 없어도 매일 회사로 출근해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쌍용차의 경영상황 악화로 사태 해결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유창욱 기자 woogi@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SK(주), 식품 저온 물류업체에 250억 투자

‘벨스타’ 친환경 냉매 기술 선점 에너지 절감 ‘사회적가치’ 창출

SK(주)는 콜드체인 물류업체 벨스타 수퍼프리즈(이하 벨스타)에 250억 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물류 경쟁력 강화 차원이다.

콜드체인이란 신선식품 등을 저장·운송하는 과정에서 저온을 유지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저온 유통체계다.

SK(주)는 이번 투자로 저온 물류영역 선점과 함께 ‘에너지 절감 및 재활용’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도 가능해졌다고 자평했다.

벨스타는 2014년 미국 사모펀드 EMP 벨스타가 설립한 회사다. 최대주주인 EMP 벨스타와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시의 오성산업단지 내 2만8000평 규모의 대지에 현대식 저온 물류센터를 준공, 그해 6

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가인 천 송도국제도시 신항배후단지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설립할 예정인 초저온 복합 물류센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이번 투자에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며 SK(주)와 함께 2대 주주가 됐다. 양사는 향후 1년 안에 각각 125억 원씩 총 25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갖는다.

벨스타는 액화 천연가스를 다시 기체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저온 물류용 냉매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 냉장 방식 대비 전기요금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벨스타는 앞으로 국내 공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다수의 LNG 냉열 기반 콜드체인 물류센터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전망이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올해 글로벌 가전시장 규모 2.5% 성장”

시장조사업체 Gfk “5G 효과”

설명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보급으로 통신가전이 전체 가전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해 전 세계 가전시장이 2%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Gfk는 올해 전 세계 가전제품 매출액은 작년 약 1300조 원에서 2.5% 상승한 약 13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13일 밝혔다.

Gfk는 약 7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가전제품 매출액이 2~3% 소폭 상승하거나 그대로일 것이라고

품목별로는 통신가전(3% ↑), 대형가전(2% ↑), 소형가전(8% ↑)이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IT·사무용 기기와 영상 가전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전제품 매출의 상당 부분은 통신가전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가전은 전체 가전 시장 매출의 43%를 차지하며 약 58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적으로 5G 보급이 본격화하면서 시장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 분석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올해 순익 10억 목표... 흑자전환 원년 될 것”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사업 전략 간담회

공영홈쇼핑이 창립 5주년을 맞는 올해를 흑자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비용절감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겠다는 포석이다.

공영홈쇼핑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최창희(사진) 공영홈쇼핑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록 적자로 마무리됐지만 작년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올해는 10억 원의 수익을 내 창립 5주년 해를 흑자전환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한 공영홈쇼핑의 올해 경영 슬로건도 ‘고 인투 더 블랙’(GO INTO THE BLACK)이다.

최 대표는 작년 하반기 사내에 많은 변화를 시도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2015년 설립됐으나 매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

2018년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성 강화

방송 송출 이중화 구축작업 완료
생방송 2시간으로 확대 단점 보완
영업·마케팅 등 4본부 체제 구축

매출 극대화

K뷰티 등 트렌드 반영 시장 공략
창립 5주년 특별상품 공급 계획
데이터랩 신설로 공격적 마케팅

에도 판매수수료를 기존 민간 홈쇼핑 사업자들만큼 올리지 못해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채용비 등의 잡음도 있었고 작년에는 2번의 생방송 송출 정지사고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작년 하반기 실장급 이상 임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했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했다. 이에 힘입어 작년 8월부터는 매출 적자이던 월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다. 작년 상반기 83억 원이 넘는 적자가 하반기 흑자기조로 40억 원 넘게 메워졌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취급액 7156억 원, 당기 순손익 43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이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취급 정책이

시행됐고 인터넷TV(IPTV)사업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송출수수료를 동결한 것도 큰 덕을 봤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최 대표는 “사업자들과 공영홈쇼핑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조직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미 작년 하반기에 안정적인 방송 송출을 위한 이중화 구축작업을 완료했다. 약점으로 지적된 짧은 방송 시간도 개선해 생방송 시간을 2시간 확대했다.

또 영업·마케팅·방송콘텐츠·경영지원 4본부 체제를 정착시켜 전문성도 강화했다.

최 대표는 “공공기관 최초로 직급을 파괴해 상급자의 직급이 아닌 이름을 부르며 하는 것 검토 중”이라며 “전문성만 있다면 대리도 과장도 팀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격적 운영을 통해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최 대표는 “잘 팔리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고 규정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팔리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공영홈쇼핑은 매출 증대를 위해 카테고리별 1위 상품 발굴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브랜드K, K뷰티 상품, 기획 직매입 등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선도적 상품 기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상의 전환’도 시도한다. 연간 5주년 특별상품 또는 한정상품 등을 발굴해 공급하겠다는 것.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특별상품을 기획하겠다는 의미다. 최 대표는 “연간 특별상품 공급을 통해 호응을 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격적 마케팅 전개를 위해 ‘데이터랩’ 조직도 신설했다. 전사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분석 고도화를 위해서다.

최 대표는 “모든 의사결정은 철저히 데이터 기반으로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몸부림이 계속될 것”이라며 “올해는 취급액 8300억 원, 순이익 10억 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소상공인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나선다

스마트 기술 보급·창업 교육 등 자생력 강화 10대 핵심과제 발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0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10대 핵심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공단은 이번 핵심과제 이행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중소벤처기업부의 ‘10대 핵심과제’를 반영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우선 공단은 △스마트 소상공인 양성 △단계별 성장지원 강화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지원영역을 설정했다.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기술발전에 대응 가능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다.

스마트오더, 스마트 미러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점 기술을 소상공인에게 보급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단계별로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설치 확대 및 예비 창업자 교육 내실화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또는 예정)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자금 지원, 재교육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윈스톱 재기지원을 비롯해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성 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약 특별자금을 지원해 재기를 독려한다.

조봉환 이사장은 “그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급히 필요한 맞춤형 과제들을 10대 핵심과제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1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MEC TF’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토마스 황 타이완모바일 디지털 담당, 마리아 리 HKT 이동통신 담당 임원, 하민용 SK텔레콤 경영기획2그룹장, 오격 취 브리지얼라이언스 CEO, 이강원 SK텔레콤 클라우드랩스장, 루이스 라이 싱텔 임원, 찬인 친 싱텔 임원. 사진제공 SK텔레콤

<모바일 에지 컴퓨팅>

SKT ‘5G MEC’ 글로벌 동맹전선 구축

아시아 이동사 5곳과 TF 발족 표준규격 등 서비스 공동 개발 초대 의장사 맡아 협력 주도

SK텔레콤이 차세대 기술인 ‘5G MEC(모바일 에지 컴퓨팅)’ 분야에서 글로벌 ‘초(超)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SK텔레콤은 13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아태 통신사 연합회 ‘브리지 얼라이언스(Bridge Alliance)’ 소속 통신사인 싱텔(싱가포르), 글로벌(필리핀), 타이완모바일(대만), HKT(홍콩), PCCW글로벌(홍콩) 등 5개사와 함께 ‘글로벌 MEC TF’를 발족했다.

초대 의장사는 SK텔레콤이 맡는다. 이번 ‘글로벌 MEC TF’는 ‘브리지 얼라이언스’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MEC 개발·구축에 성공한 SK텔레콤에 관련 기술 전수를 요청하고, 여러 통

신사가 합류하며 결성됐다.

‘글로벌 MEC TF’에서 SK텔레콤은 싱텔, 글로벌 등 연내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회원사에 5G, MEC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각사의 역량을 모아 MEC 기술,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경 없는 MEC플랫폼’을 위한 표준 규격 제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다.

MEC는 무선 데이터 전송 지름길을 만들어 △클라우드 게임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및 차량관제 등 초저지연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는 5G 핵심 기술이다.

이번 초협력 체계 구축은 한국 기술 중심으로 아시아 5G MEC 생태계가 구축되고, 5G 기술·서비스를 관련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텔레콤은 5G 핵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MEC 등을 솔루션 패키지로 구성하고 있다.

‘글로벌 MEC TF’ 첫 워크숍은 13일

부터 15일까지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에서 SK텔레콤은 약 30명의 TF 관계자들에게 사흘간 SK텔레콤의 5G 전략, MEC 기반 스마트 팩토리 사례 등을 발표하고, 미래 체점관 ‘티움’ 및 종로 ‘롤파크’에 구축된 5G클러스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강원 SK텔레콤 클라우드랩스장은 “연말까지 약 350개 통신사가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 회사와 5G와 MEC 협력을 하고 싶다는 요청도 크게 늘고 있다”며 “한국 중심으로 협력 체계가 커지며, 우리나라 5G·MEC 기술도 글로벌로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격 취 브리지 얼라이언스 CEO는 “이동통신 산업 역할이 연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인프라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이 국경을 넘는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yes@

KISA, 긴급구조용 위치정보 데이터 개방

지하철 역사 AP정보 수집·정제 스타트업 서비스 개발 불편 해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스타트업 확산 및 모바일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기존 긴급구조용(Wi-Fi AP 정보)을 개방하고 활용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자원인 빅데이터의 활용은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위치정보는 재난예방·긴급구조·국민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 활용에 필요한 측위 인프라 구축 비용 문제, 그간 중소기업들은 위치기반서비스 분야 진출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다.

이에 KISA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긴급구조 지원 목적으로 2014년부터 4년간 구축했던 위치정보 데이터를 위치정보

스타트업 등 민간 기업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됐다.

해당 데이터는 전국 890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Wi-Fi AP 정보를 수집 및 정제한 데이터로, 약 22만 개의 AP 정보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에서 측위 및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KISA는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데이터의 구조, 측위 성능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위치정보 데이터(Wi-Fi AP 정보)의 활용 가이드’도 제작해 배포했다.

위치정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활용 가이드는 KISA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이번 위치정보 데이터 개방이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확대·성장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그간 위치기반서비스 분야 진출을 원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중소·스타트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희 기자 che@

www.djsi.or.kr

DJSI

〈2019/20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우수 기업

100년 뒤에도 지속가능할 대한민국 대표 초우량 기업입니다.

DJSI는 이 기업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과 성과를 인정하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1999년 발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경영 표준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난 20년간 전 세계 유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의 종합적 기업가치 제고
- 세계적 표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글로벌 생존력 향상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라운드를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 지수편입을 통한 명성제고와 지속가능한 투자자금 유입증대

 HANKOOK driving emotion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KB 금융그룹	
 LG전자	 LG 생활건강	 S-OIL	 SK 텔레콤
 SK 주식회사	 SAMSUNG 삼성증권	 SAMSUNG 삼성전기	 신한금융그룹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DGB 금융그룹	 HYUNDAI STEEL	 현대건설

DJSI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기업을 단순한 재무적 정보만으로 파악하지 않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DJSI Korea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운영기관으로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S&P Dow Jones Indices), 지속가능성 평가 및 투자 글로벌 선도기업인 로베코샘(RobecoSAM)이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한 세계 최초 국가단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입니다.



점포당 임대료 年1억 이상... GS25 '승자의 저주' 우려

GS25 '7호선 편익점' 40곳 수성 성공

최저 입찰액보다 30% 높은 가격에 낙찰 '1위 굳히기'
CU·이마트24·미니스톱 "수익성 낮다 판단해 포기"
업계 6월 예정된 해군 PX 260곳 운영권 입찰전 주목

GS25가 40개의 서울지하철 7호선 편의점을 낙찰 받으며 점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라이벌인 CU(씨유)를 비롯해 이마트24가 막판에 입찰을 포기하면서 임대료가 너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GS25는 이날 열린 '7호선 편익점 브랜드전용점 임대차' 입찰에서 총 275억2738만 원 최고가를 제시해 낙찰을 받았다. 이는 서울교

통공사가 제시한 최소 금액 211억7491만 원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이다.

이번 입찰에는 기존 운영사인 GS25와 세븐일레븐 2곳만이 참여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CU와 이마트24, 미니스톱은 참여하지 않았다. CU 관계자는 "손익 위주의 출점 전략을 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GS25가 따낸 금액을 매장 40곳으로 나누면 점포 한 곳당 임대료만 평균

연 1억3800만 원(월 1147만 원)이 든다. 이는 2018년 10월 '건대입구역 등 9개소(건대입구역-미아역)' 입찰에서 CU가 낙찰 받은 33억8131만 원보다 높다. CU는 한 곳당 연간 7514만 원(월 626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서울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인 '6, 7호선 복합 문화·상업 공간 임대차' 입찰 가격보다도 비싸다. 공사 측은 이들 점포에 대해 기초 금액으로 827억7034만448원을 정했는데, 이를 점포 수 386개로 환산하면 매장당 월 임대료는 357만 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25가 높은 금액으로 응찰한 이유는 편의점 점포수 1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크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GS25는 점포 수 1만3899개를 기록

하며 17년 만에 CU(1만3820개)를 누르고 점포 수 선두 자리를 꿰찼다. 양사의 차이는 79개에 불과해 경쟁사인 CU가 따낼 경우 향후 편의점 선두 자리를 수성하는 데 난항을 겪는다. 이 때문에 GS25가 '2개월 천하'로 끝나지 않으려면 '서울지하철 7호선 대전'에서의 승리가 절실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퇴직자 창업 열풍으로 2015년부터 4~5년간 간해 3000~5000개씩 편의점 점포 수가 늘어났다. 통상 5년 계약 시기를 고려할 때 상당수가 올해부터 브랜드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는 만큼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 업계의 눈은 6월 매물로 나올 해군 PX에 쏠려 있다. 현재 GS25가 직영점이나 가맹점 형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매출에 비해 임대료가 높아 수익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특성상 섬 등 도서 지역에 점포가 있는 경우가 많아 물류비 부담이 있는 데다 일반 점포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아야 하는 특성 때문이다. 게다가 24시간 운영도 아니다.

하지만 해군 PX 운영권을 확보하면 한번에 260개 매장을 확보할 수 있어 점포 수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점포 수 경쟁이 치열한 와중에 놓쳐서는 안 될 대규모 입찰인 셈이다. 여기에는 육군 PX 민영화도 거론되는 가운데 해군 PX 운영 경험을 장점으로 부각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사업권의 경우 최근 임대료가 오름세인 데 반해 수익성이 좋지 않아 계적으로 전락했다"면서도 "다만 홍보 효과가 큰 데다 최근 점포 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기능성 의류 브랜드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블랙야크 산행 캠페인·안다르 요가 클래스 등 소비자 참여 '챌린지 마케팅'

기능성 패션 브랜드가 문화 선도자로 거듭난다. 애슬레저나 아웃도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시장이 커지자 브랜드들이 단순히 옷을 파는 데에서 나아가 옷을 활용해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콘텐츠를 기획해 선보이고 있다.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자연스레 브랜드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밑거름을 만드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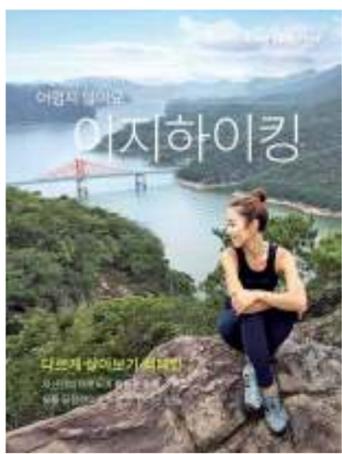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곳이 바로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다. 블랙야크는 산행에 대한 지식과 활동을 공유하는 앱 기반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Blackyak Alpine Club, BAC)을 운영 중이다.

아웃도어를 통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Live. Different (다르게 살아보기)'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참가자와 게스트가 자연 속 산행을 함께 즐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지 하이킹(Easy Hiking)' 등을 통해 산행의 가치를 소비자와 공유하고 있다.

K2 역시 2016년부터 등산, 백패킹, 클라이밍, 캠핑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어썸챌린지' 프로그램은 운영 중이다. 2018년에는 하이킹에 초점을 맞춘 '어썸하이킹'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K2 관계자는 "어썸하이킹은 진정한 산의 매력을 느끼고, 가치 있는 산행을 함께 만들고자 기획됐다"고 말했다.

마무트 역시 알파인으로 성장하고 싶



블랙야크 'Live. Different' 캠페인 중 '어렵지 않아요, 이지 하이킹'. 사진제공 블랙야크

어하는 소비자를 위해 각종 이론 교육과 실전을 경험하는 '마무트 알파인(MAMMUT ALPINE)'을 진행 중이다. 마무트 측은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산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는 2018년부터 요가 클래스를 운영 중이다. 요가 클래스는 갈수록 규모가 커져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요가 클래스 행사에는 역대 최다인 292명이 참가했다. 또 안다르는 아크로요가, 하타요가, 매트필라테스 등 평소보다 많은 15개 클래스를 오픈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클래스는 여성뿐 아니라 안다르만의 문화와

철학을 선호하는 남성 소비자들도 관심을 보였고,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비자와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안다르 측 관계자는 "안다르 요가 클래스는 건강한 애슬레저 문화를 선도하고, 안다르만의 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다르는 요가 클래스뿐 아니라 이달 중 여성 전문 운동 학원인 '필라테스 원' 서울 강남 1호점 오픈도 앞두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는 러닝 문화 확산에 나선다. 아디다스는 올바른 러닝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아디다스 러너스 서울'을 운영 중이고, 뉴발란스 역시 전문 코치들이 직접 운동을 지도해주는 '뉴발란스 러닝 클럽'을 이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프로그램 구성 등이 곧바로 매출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브랜드가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구매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 숫자는 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각 브랜드가 속한 아웃도어, 애슬레저 등의 영역이 문화로 자리 잡고 대체가 되면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고 브랜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13일 모델들이 설을 앞두고 프리미엄 선물세트 '피코크 시그니처'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이마트 '백화점급 선물세트' 출시

'피코크 시그니처' 36종 선배
20만 원대 설 선물 예약 확대

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마트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마트는 올해 설을 맞아 신상품 5종을 포함한 백화점급 프리미엄 선물세트 '피코크 시그니처' 36종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첫선을 보인 피코크 선물세트는 출시 첫해 상품 수 3종, 매출액 7억 원가량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추석에는 상품 수도 32종으로 늘었으며 매출액 역시 50억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마트는 피코크 시그니처로 새롭게 브랜드링해 패키지를 리뉴얼하고 전용 카탈로그도 제작하는 등 프리미엄 선물세트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는 추석보다 상품 수를 4종 추가하고, 주요 상품 물량을 최대 2배가량 늘렸다. 전체 매출 역시 약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황성 1++등급 한우 중 최고급육만 선별한 '피코크 황성축협 한우1++등급 구이 세트 1·2호'를 행사카드로 구매 시 10% 할인한 54만 원에 판매한다. 추석에 판매했던 1호 세트는 물량 200여 개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올해는 구성을 달리한 2호 세트도 같은 가격에 새로 출시해 전체 물량을 2배로 늘렸다.

수산에서는 일반 상품 대비 크기가 2배가량 큰 최상품만 엄선한 '피코크 황제갈치 세트', '피코크 황제옥돔 세트'가 대표적이다. 두 세트 모두 가격은 25만 원이다. 지난 추석에 준비한 물량이 완판되고 추가 생산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올해는 기획 물량을 2배로 늘렸다.

지난해 2000개가 조기 완판된 '피코크 참기름 들기름 세트' 물량을 3500개로 확대하는 등 가공식품 세트도 준비했다.

이마트가 이처럼 프리미엄 선물세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마트에서 매년 프리미엄 선물세트의 매출 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설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한 12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만 원 이상 선물세트 매출 비중이 3년 전인 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1%로 나타났다.

올해는 처음으로 20만 원 이상 프리미엄 선물세트의 매출이 10만 원대 선물세트 매출 비중을 역전한 점도 눈에 띈다.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한우, 굴비 세트의 매출 성장이 눈에 띈다.

같은 기간 50만 원 이상 한우 선물세트의 매출은 2019년 추석 동기간 대비 약 36% 증가했다. 20만 원 이상 굴비 세트는 이미 지난 추석 전체 판매량을 넘어섰으며, 이 추세라면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미엄 선물세트의 인기 요인은 개인 고객들의 선물세트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효율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소수의 사람에게 더 집심을 담아 선물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마트 그로서리본부의 박정우 본부장은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대형마트에서 실속 있게 구매하려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마트는 피코크 시그니처 선물세트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프리미엄 선물세트 고객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CJ제일제당, 美슈완스 냉동피자 첫선

자체 브랜드 '고메' 업그레이드

CJ제일제당이 냉동 피자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인수한 미국 슈완스사의 대표 제품을 국내에 선보여 시장 영향력 확대에 집중한다고 13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또한 슈완스사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기존 '고메' 피자 라인업을 전면 업그레이드해 정제기에 접어든 냉동 피자 시장의 성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냉동 피자 시장 규모는 2016년 198억 원에서 2018년 952억 원으로 3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다만 지난해



CJ제일제당은 시장 정체 이유를 국내 제품의 '맛 품질 한계'와 업체들의 '제조 기술력 부족'으로 분석했다.

이에 슈완스사의 대표 피자 'Red Baron(레드 바론)'을 국내에 선보인다.

'레드 바론'은 1976년 첫선을 보인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정통 미국식 피자 브

랜드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레드 바론 딥디쉬 치즈피자'로 깊은 접시 모양인 딥디쉬(Dish) 피자의 바삭한 도우와 깊고 진한 치즈 풍미가 특징이다.

선진 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50년 동안 축적된 슈완스사의 피자 연구개발 및 제조 기술 노하우와 CJ제일제당의 냉동식품 역량 집약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고메' 피자를 업그레이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진천BC에서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 냉동 피자 시장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김숙진 CJ제일제당 냉동식품팀장은 "냉동 피자도 전문점 피자 못지않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내 냉동 피자 시장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ETF, 레버리지·인버스 편식 심화... 성장 걸림돌”

최근 1개월 거래 27억만좌 중 레버리지·인버스 68% 차지
‘과반 이상 쏠림’ 한국이 유일

종목명	수익률(1개월)	누적거래량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7.78%	5억3134만
KODEX 레버리지	16.22%	3억1375만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18.32%	1485만
KODEX 200선물인버스2X	-14.88%	4억4693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9.12%	3억3157만
KODEX 인버스	-7.64%	2억493만
TIGER 200선물인버스2X	-14.8%	2119만

※출처: 한국거래소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거래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성 상품인 만큼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ETF 거래량은 27억7704만좌로 이 중 레버리지(8억6006만좌)와 인버스(10억3343만좌) 거래가 68.18%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상장돼 있는 ETF는 총 451개로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은 각각 36개(7.98%), 40개(8.86%)에 불과하다.

레버리지는 기초자산이 오르면 상승률의 두 배 수익이 나지만 반대로 하락할 경우 두 배의 손실이 나는 상품이다. 반대로 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이 하락할 경우 수익을 얻고 상승할 경우 손해를 본다. 두 상품 모두 성장 가치나 실적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상승과 하락에 베팅한다는 점에서

단기 투기성 성격을 가진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무렵 ELW(주식워런트증권) 손실 사태 발생해 규제가 엄격해졌다”며 “풍선 효과로 ELW에 대한 수요가 레버리지와 인버스로 몰리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대형 은행들이 레버리지 관련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운용자산(AUM)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ETF 시장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해당 상품의 점유율이 1% 내외로 수요가 높지 않다. 단기매매 중심의 투자가 우선시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나오지 않는 점도 문제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는데 인버스와 레버리지의 경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은 아니다”며 “다만 국내 상품들의 경우 기초자산으로 섹터나 지수가 아닌 유가나 금과 같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욱 크다”고 조언했다.

레버리지·인버스ETF와 다른 상품 간

편차도 크다. 국제나 통안채, 우량기업 관련 ETF의 경우 한 달 거래량이 100건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 달간 ‘마티 코스피100’(20좌), ‘흥국 S&P코리아 로우볼’(25좌), ‘파워 증기국고채’(29좌), ‘HANARO 단기통안채’(35좌), ‘TREX 펀더멘탈200’(53좌) 등이 저조한 거래량을 기록했다.

김남기 본부장은 “DLF(파생결합펀드)처럼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 수익률이 -70% 정도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 말 고위험 상품에 대한 규제도 레버리지 상품을 신탁으로 팔 수 없게 되면서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레버리지와 인버스 이외 투자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주가 ‘고공행진’

삼성전자 6만원·SK하이닉스 10만원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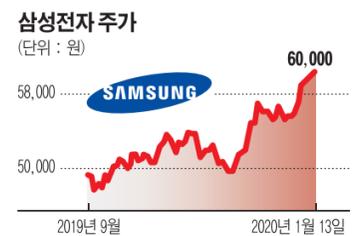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사상 최고 주가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84%(500원) 오른 6만 원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1.96%(950원) 오른 4만 9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9일 5만86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수정주가 기준 1975년 6월 11일 상장 이후 약 45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를 다시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을 넘어선 건 2018년 5월 4일 액면분할 이후 2년 만이다. 액면분할 이전 가격으로 환산하면 주당 300만 원에 해당한다. 지난해 1월 초에는 주당 3만7000원대에 거래됐는데, 1년 만에 약 60%가량 오른 셈이다.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보다



1.62%(1600원) 오른 10만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8-9일 이를 연속 증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했고, 10일에는 장중 9만9700원까지 뛰어올랐다.

주가 상승세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빠른 실적 개선세도 기대감을 더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7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증권사 컨센서스 평균인 6조5000억 원을 9.2%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두 반도체 대장주들의 질주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증권가와 반도체 업계에선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수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5G 서비스 확대 및 AI 생태계 구축 본격화 등 반도체 수요 증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운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DRAM 가격 상승이 가시권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차입금 부담 커지는데... 외식프랜차이즈에 ‘올인’

상장사 재무 분석

일야

코스닥 상장사 일야의 차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업 인수를 통해 재무 개선과 실적 반등을 노린다는 구상이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일야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순차입금비율은 97.29%로, 전년 말(61.41%) 대비 30%포인트 이상 늘었다. 순차입금의 규모가 회사의 총자본과 맞먹는 셈이다.

지난해 차입금 규모는 장단기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단기차입금의 경우 2018년 86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15억 원으로 늘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장기차입금 역시 6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불어났다. 부채비율도 2017년까지 두 자릿수의 양호한 상황을 유지해오다 2018년 들어 151.17%로 늘더니 지난해 243.70%까지 수치 상승했다.

다만 유동부채의 증가폭이 유동자산 상

일야 재무·손익 현황 (단위: 억 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Q
매출	739	428	288	747
영업이익	26	-31	-42	-5
부채비율	57.78	57.68	151.17	243.7
순차입금비율	0	13.28	61.41	97.29

※출처: 금융원 전자공시

매출 줄며 3년 연속 적자 행진

부채비율 작년 243%로 급증

주식 취득 목적 262억 유증 결정

공시 직후 주가 18% 떨어져

승폭보다 크지 않아 유동비율(81.22%)은 전년 말 대비 소폭 나아졌다.

실적은 2017~2018년 적자에 이어 지난해 역시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분기별 매출 규모가 다시 200억 원대로 회복하고 영업 손실폭이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3.89% 증가한 747억 원, 영업손실은 76.55% 개선된 5억 원이

다. 당기순손실도 1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야는 지난주 26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 중 절반 가량은 타 법인 주식 취득에 활용되고 나머지 운영 및 재무상환에 활용된다.

일야가 지분을 취득하는 회사는 예술에 프사로 주식 10만 주를 158억 원에 취득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인수에 대해 “사업 다각화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안정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의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대부 부품 제조업체가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인수한 만큼 신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일야는 이번 인수와 함께 F&B 사업분부를 신설한다.

한편 대규모 유증 소식에 주주까지 희석에 대한 우려 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유증 공시 직후인 이날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21% 하락한 159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 글로벌 대형 기술주 펀드 ‘월월’

페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투자자 장기 성장 가능성에 베팅
FANG+(H) ETF 3개월 새 27% ↑
BANTT선 테슬라 95.3% 상승

FAANG·BANTT 종목 주가 추이 (단위: 달러)

FAANG	2019년 10월 10일	2020년 1월 10일	변동률
페이스북	180.03	218.06	21.12%
아마존	1720.26	1883.16	9.47%
애플	230.09	310.33	34.87%
넷플릭스	280.48	329.05	17.32%
구글(알파벳)	1209.47	1428.96	18.15%

BANTT	2019년 10월 10일	2020년 1월 10일	변동률
바이두	103.85	144.51	39.15%
알리바바	166.07	223.83	34.78%
엔비디아	183.03	244.32	33.49%
트위터	39.54	32.78	-17.10%
테슬라	244.74	478.15	95.37%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과 ‘BANTT’(바이두·알리바바·엔비디아·트위터·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종목들에 분산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도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NYSE FANG+지수’에 연계된 ‘KODEX 미국 FANG플러스(H) 상장지수펀드(ETF)’가 해외주식형 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최근 3개월·설정액 10억 원 이상 기준)인 27.60%를 기록했다.

FAANG과 BANTT에 속한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뉴욕증권거래소(NYSE) FANG+지수는 10일 기준 3306.34를 기록하며 최근 3개월간 28.53% 상승했다. 이 기간 나스닥지수가 15.4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큰 상승폭이다.

이 기간 FAANG 중에서는 애플(34.87%), 페이스북(21.12%), 구글 모기업 알파벳(18.15%), 넷플릭스(17.32%), 아마존(9.4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BANTT에서는 테슬라(95.37%) 상승률이 압도적이고 바이두

(39.15%), 알리바바(34.78%), 엔비디아(33.49%)가 뒤를 따랐다. 지수 구성 종목 중 트위터 홀로 17.10%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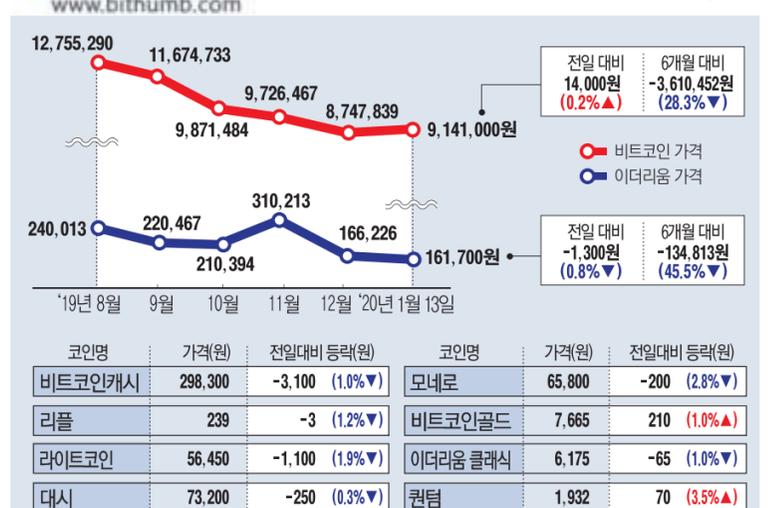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FAANG에 대한 위기론이 거셌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매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됐고, 신규 진입 기업들이 늘면서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또 거대 IT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확인한 투자자들이 장기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나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은 올해 저가형 모델 및 5G폰 출시에 힘입어 전년(1억9000만 대) 대비 10%가량 증가한 2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출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이폰을 시장에 대폭 공급해 아이패드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서비스 수요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20년 1월 13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4월 유예기간 종료〉

“상한제 前 로또 아파트 잡자”...연초부터 ‘청약 광풍’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1순위 청약 최고 가점 79점
관심 쏠린 둔촌주공재건축 등에 예비 청약자 ‘눈치싸움’
조기 분양에 공급 감소 우려...경쟁 더 치열해질 듯

청약 비수기로 꼽히는 연초에도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 수요자들이 추운 날씨에도 청약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달 초 1순위 청약 받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 당첨 최고점은 79점으로 나타났다. 최고점은 전용 59㎡B타입 (경쟁률 39.88대 1)과 전용 114㎡B타입 (경쟁률 215대 1)에서 각각 나왔다. 최저점은 전용 45·49㎡타입에서 나온 56점으로 집계됐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가 공급한 14개 주택형 가운데 절반 이상인 9개 타입의 청약 당첨 최고점이 70점대였다. 전용 102㎡B (70점) · 114㎡B (72점) · 114㎡C

(70.25점)타입은 평균 당첨점수가 70대를 기록했다.

연말 연초는 통상적으로 청약 비수기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4월에 종료되는 이슈를 앞두고 사업 주체인 조합·시행사·시공사가 분양 일정을 앞당기면서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늘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격이 낮게 책정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분양에 나섰다.

예비 청약자들 역시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 상한제 도입 이후에 분양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것도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시장에 일찌감치 뛰어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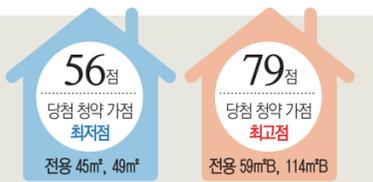
부동산114와 부동산인포 등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나온 첫 분양 아파트로 관심을 끈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옛 개포주공4단지)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청약 경쟁률

1순위 평균 경쟁률	65대 1
최고 경쟁률(전용 102㎡A)	283대 1



올해 1분기 서울 분양 예정 주요 아파트 단지

단지명	분양시기	지역	총기수	일반분양	건설사
힐스테이트 세운	3월	중구 입정동	998	899	현대엔지니어링
혹석3구역	3월	동작구 혹석동	1772	364	GS건설
둔촌주공재건축	4월	강동구 둔촌동	1만2032	4786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수색6구역	4월	은평구 수색동	1223	458	GS건설

※분양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출처: 부동산인포, 부동산114

서울에서 예정된 주요 분양 단지는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동작구 혹석3구역, 은평구 수색6구역 등이다.

특히 올해 서울 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뜨겁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총 가구수 1만2032가구)에 달해 당첨 희망을 품은 예비 청약자들이 대거 통장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부

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청약당첨 안정권 점수가 70점대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강남에서 나오는 재건축·재개발 분양 물량의

당첨 점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80점대에서도 당첨 최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서희희 기자 jhsseo@

경영 악화에 전방위 규제로 간간해진 건설사 ‘돈 되는’ 정비사업장 수주에 올인

갈현1·한남3구역 유찰 잇따라
한남하이츠·반포3주구는 ‘인기’

올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각 정비사업장에 대한 건설사들의 온도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작년만 하더라도 정비사업장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던 건설사들이 어려워진 경영 여건 탓에 사업성을 꼼꼼히 따지는 데다 전방위 정부 규제도 건설사들을 간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1구역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조합은 3차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모두 고려했으나, 이미 2차례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갈현1구역 조합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갈현1구역은 공사비만 약 9182억 원으로 강북권 ‘대어’급 재개발 사업지로 꼽혀 왔지만 1차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과 소수까지 가면서 잡음이 일었다.

올해 정비사업 최대어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도 시공사 선정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 7일까지 입찰공고를 내고 5월 중순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한남3구역을 놓고 벌어진 건설사 간 과열 경쟁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건설사들의 부담

이 커진 모습이다.

반면 건설사들이 ‘균점’을 흘리는 사업장도 있다.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뛰어 들었다.

특히 현대건설은 한남하이츠 재건축 수주를 위해 자사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강북권 최초의 디에이치 브랜드를 다는 단지가 된다. GS건설은 한남하이츠 수주에 집중하기 위해 갈현1구역 입찰 참여도 포기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에는 무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건설사 모두가 입찰에 나설지는 미지수이지만 지난 2년여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삼성물산까지 등장한 것은 반포3주구에 쏠린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방증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감이 많아 올해도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지난해 ‘학습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 같다”며 “가득이나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존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도 있어 사업장별로 선별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롯데·포스코건설 ‘디데크 공법’ 신기술 인증 ‘거푸집’ 보다 공사기간 40% 단축...지하주차장 등 활용도 높아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2일 장경간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D-Deck 공법) 기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 신기술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술은 바닥 시공 시 구조물을 장경간(보와 보 사이 간격이 넓은) 데크플레이트로 시공해 작업 과정을 단순화하는 기술이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과 함께 더 나은구조엔지니어링, 삼우씨엔건축사사무소, 엔아이스틸이 공동연구로 개발했다.

이 공법은 임시 받침 기둥 위에 8~9m의 더블 리브 골형 강판(단위 폭 600mm에 두 개의 리브를 가지는 데크플레이트)을 올

리는 방식이다. 또 시공 자체도 용접 없이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리브 사이에 간편하게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기 단축과 시공성을 확보했다.

재래식 거푸집 공법 대비 40%, 기존의 데크 공법 대비 20% 가량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는 능력을 증가시켜 처짐 및 균열 발생을 줄여 안전성도 개선했다. 타워크레인 등의 장비 도움 없이 최소 인력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 기술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오피스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에 활용도가 높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加耶本性
가야 퍼시징
칼과 철의 선
GAYA SPIRIT-IRON AND TUNE

2019.12.3. 화 - 2020.3.1. 일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협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의 1688-0361

허술한 法 때문에... 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

글 쓰는 순서

- ①지능화되는 신종 금융범죄
- ②서민 속이는 교묘한 사기꾼들
- ③**멈추지 않는 피해자의 눈물**
- ④'서민다중피해' 주시하는 검찰

부패재산물수법 세부규정 없어 몰수 범죄수익 돌려주기 어려워 대검, 구제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

금융사기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사기범을 잡아도 이미 범죄수익을 탕진했다면 피해자들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 수사기관 등에서 유능하게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더라도 완벽히 구제받기는 어렵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급증하는 민생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되찾아 주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제도적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조은D&C 분양 사기... 추정보전 청구 기각 = 김혜은(가명) 씨는 2016년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이익금 30~40%를 원금과 함께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넣었다. 1년이 지나고 그의 통장엔 원금과 이익금을 합한 숫자가 찍혀 있었다. 꿈만 같았다. 김 씨는 이 사업에 다시 투자했다. 하지만 이번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부산에서 벌어진 조은D&C 분양 사기 사건이다. 이업체의 대표 조모 씨는 김 씨 등 피해자 418명에게 754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이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막

기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이 사건을 TF '1호 민생사건'으로 지정했다. 부산지검은 조 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 575억 원 상당을 범죄피해 재산으로 판단해 몰수했다. 부패재산물수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형사 배상명령은 각하하고, 검찰의 추정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부패재산물수법이 정한 범죄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부패재산물수법의 허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환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민사절차에 의한 회복보다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추정보전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자들 '발 동동' = 주택조합 사기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실체가 없는 업체에 사업권 대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에 3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 씨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주택조합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도하면서 조합의 집행부를 측근으로 구성해 범죄를 저질렀다. 용역을 중복으로 체결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창원지검은 관련 회사 10여 개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수익 215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은D&C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추정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300여 명 정도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

부산 조은D&C 분양 사기

2010년	조모 씨, 조은D&C 설립
2016~2018년	조 씨 등, 피해자 418명 · 714억 편취
2018년	검찰, 범죄 이익금 575억 원 추정보전
2019년	- 검찰, 조모 씨 등 3명 기소(2월) 추징보전 청구(10월) - 법원, 조모 씨 징역 12년 선고 추징보전 기각(12월)
2020년	검찰, 추정보전 기각에 대해 항고

창원 지역주택조합 사기

2015~2017년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 씨 등 조합에 340억 원 손해
2017년	검찰, 계좌추적 · 압수수색 251억 원 추정보전
2018~2019년	검찰, 김 씨와 조합집행부 등 10명 기소
2019년	법원, 김 씨 징역 9년 선고 · 추징보전 기각(10월)

면서도 "부패재산물수법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검 시행령 초안 보고... 피해자들 '못 믿어'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은 지난해 부패재산물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법무부에 넘겼다. 시행령에는 피해액 지급 절차·대상을 선정하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굶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은D&C 사건 피해자 허원식(가명) 씨는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도 않고 '민생 1호'라고 피해자들이 곧 구제될 것처럼 한다"며 "그러나 몰수 보전된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열람도 시켜주지 않고, (검찰이 몰수한 조 씨의 부동산은) 개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김종용 기자 deep@

사법농단 첫 판결은 '무죄'

'재판자료 유출' 혐의 유해용 1심서 "증거 부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첫 선 거로 관심을 모았던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7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후 약 2년 만에 내려지는 첫 사법부의 판단이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4~2016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위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재운 부부의 소송 결과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과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

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경과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누설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을 가져간 혐의에 대해서는 "이 파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기록물에 관한 인식이나 범위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유출의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활용하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이 행위와 함께 적용된 절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를 마친 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는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오류 5시에 제공되는 유류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에 게재됐습니다

파산한 '코인빈' 채권액 239억 확정

예상배당률 5%... 재산처분 추이 따라 올라갈 듯

지난해 내부 직원이 암호화폐 보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키(프라이빗키)를 분실하면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의 채권 시인 금액이 약 239억 원으로 집계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원파산21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는 9일 코인빈의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열고 코인빈의 파산관재인 김동아 변호사가 작성한 시부인표를 제출받았다.

시부인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조사해 시인하는 금액과 부인하는 금액을 기재한 표다. 시부인표로 시인된 금액은 파산절차 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채권자들은 시인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총 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시부인표에 따르면

6일 기준 신고채권자는 882명으로 신고금액은 총 30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시인 금액은 239억9613만 원, 부인 금액은 63억 3187만 원이다. 예상배당률은 5%로 현재 파산재단에 10억여 원이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빈 재산 처분 추이 등에 따라 파산재단 귀속재산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코인빈과 채권자들은 부인 채권액에 대해 파산채권확정 소송을 통해 채권액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규 코인빈 대표는 지난해 2월 2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간부의 모랄해저드와 정부의 규제, 부채증가 등으로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인빈은 이날 파산에 따른 피해 규모를 270억 원으로 추정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이성윤 취임 일성 "검찰권 절제 필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향한 청와대와 여론의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사장으로 임명돼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은 지금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검찰을 둘러싼 형사 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지검장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지시했다. 그는 "최근 제정된 '인권 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인권 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승리, 구속 김립길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영장실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현재 "선거운동 소음 규제기준 없는 선거법 위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에서 후보자들의 확장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 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올해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씨는 2018년 실시된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확장장치 등을 통한 소음 유발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등을 하면서 확장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79조 3항, 102조 1항, 216조 1항 등이 심판 대상이 됐다.

현재는 해당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현재는 "정당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차량기지·면허시험장 이전 ‘힐링도시’ 만들겠다”

서울 동맥을 가다 ③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새롭고, 더 좋은 노원을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특히 노원의 미래를 위한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이전 등을 완수하고 힐링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권역별 힐링의 공간에 대한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구청장은 “수락산 내 서울시 최초의 휴양림 건설과 불암산 힐링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경춘선 숲길 화랑대역 철도공원 사업도 마무리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쉼’과 ‘치유’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구민 휴식공간은 2018년 9월 문을 연 불암산 나비 정원이다. 오 구청장은 “가족 나들이 나와서 3~4시간 쉬엄쉬엄 산책을 하고 차도 한잔 마시며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아가자기한 공간을 노원 구 곳곳에 만드는 게 목표”라며 “병풍처럼 둘러싸인 불암산 자락을 등진 불암산 힐링타운은 그 첫 번째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수락산 동막골에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은 통나무집과 숲길 산책로, 방문자센터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수락산에 통나무집 30동 등으로 구성된 자연휴양림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7일 서울 노원구청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 구청장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확실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 들어서면 서울시민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지방 정부를 경험해 본 단체장으로서 자신의 철학을 빠르게 행정에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무더위를 힘겹게 견디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 구청 강당에 ‘무더위 야간 쉼터’를 운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하는 등 혁신 사례로 소개됐다.

또한 맞벌이 부모를 둔 초등학교 저학년

불암산 ‘나비 정원’ 첫 힐링공간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차량기지 일대 바이오단지로 베드타운 극복 ‘자족 도시’ 구상



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1층에 조성한 ‘아이휴센터’도 보

건복지부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복지 행정의 모범이 됐다. 현재 아이휴센터는 13호점까지 개소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라며 “노원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현재 노원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서울 동북부 베드타운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바꾸기 위한 구상이다.

오 구청장은 “노원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될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가 있다”며 “이 일대가 바이오메디컬단지 조성되면 일자리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바이오메디컬단지에 서울대병원원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대병원과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논의 중”이라며 “올해 7월 중 바이오메디컬단지 관련해 경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는 수도권에서 찾고 있다. 오 구청장은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옮겨야 완전한 개발이 이뤄진다”며 “올해는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를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구청장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 구청장은 “광운대역 인접지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이전시키고 15만㎡에 이르는 이 넓은 부지를 현대산업개발이 개발한다”며 “올 상반기 착공할 예정인데 시행사에서 약 1만㎡에 이르는 부지를 구에 공공용지로 기부한다”며 이 공공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 구청장은 올해도 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모든 일이 그렇다. 관심이 없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혁신은 절박함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다니다 보니, 고쳐야 할 것, 직육면체 하는 것 등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며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약속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박원순, 美 정치 1번지서 “더 강력한 한·미 우호” 강조

워싱턴 DC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방문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국의 ‘정치 1번지’ 워싱턴DC에서 더 강력한 한·미 우호관계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12일(현지시간)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찾아 “대한제국 마지막 순간에도 워싱턴에 번듯한 공관을 확보하고 독립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려운 시기 선조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고 좀 더 좋은 나라, 더 강력한 나라, 더 강력한 한·미 간 우호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은 1889년 2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양 국가에 설치한 외교공관으로 구한말 자주외교의 첫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워싱턴DC의 19세기 외교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일본공사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5달래에 강탈한 직후 미국인에게 10달래에 매각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350만 달러를 들여 매입한 뒤 복원작업(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거쳐 2018년 5월 22일 전시관 형태로 재개관했다.

이날 박 시장은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이자 전 주한 미국대사인 캐슬린 스티븐슨 한미경제연구소장과 동행했다.

박 시장은 “나라가 독립을 잃어간 순간에도 많은 애국지사가 공관을 설치, 운영하고 노력했던 흔적을 발견할



박원순 시장이 12일(현지시간)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국대사와 워싱턴DC의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 있었다”며 “월로스 비행학교 등 조국 독립을 향한 노력의 흔적을 전부 시스템화해 하나의 투어 코스로 확보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한제국공사관 방문에 이어 ‘이화손 모터(오크 힐 모지 내)’를 찾

아 참배했다. 이화손은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관 자녀이자 미국 시민권 1호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의 원주인이자 미국 외교관이던 세스 펠프스의 가족묘에 묻혀 있던 오래된 묘비에서 ‘이화손’이라는 이름이 지난해 5월 확인되면서 묘지가 세상에 알려졌다.

외교관 출신으로 미국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데 앞장섰던 세스 펠프스의 가족묘에서 이화손의 묘비가 발견됐다는 점은 당시 대한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가 깊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시장은 “주미 대한제국 공사 이차연의 활동과 기록, 스토리에 관한 특별전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연내에 한 번 열고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진희 기자 jh6945@

1월에 자동차세 내면 10% 세액공제 혜택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13일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된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서초구, 육아휴직 아빠 월 30만원 장려금

서초구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사용 남성에게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장 1년간 지원한다.

13일 서초구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했고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서초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서초구가족정책과 등에 장려금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구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남성 육아휴직

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남성들이 막상 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많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왔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소득 감소’로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남성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인 것이다”라며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웃을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동작구, 마을 문제 해결 ‘공동체 공모사업’

동작구가 23일까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일상 문제를 지역의 주민공동체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8600만 원으로 사업별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2500만 원까지다.

공모 유형은 6개 분야로 △우리동네 이웃 만들기 △행복한 마을 만들기 △행복한

골목 만들기 △우리마을 활동 지원사업 △우리마을 공간 지원사업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니어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설해 마을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펼친다.

참여를 원하는 관내 주민모임이나 단체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02-820-9130)로 문의하면 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1 아우디의 자율주행차 'AI:ME' 2 현대모비스 '비전-S' 3 현대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4 UAM 메르세데스-벤츠 '콘셉트카 비전 AVTR'.

도심 교통체증? 하늘을 나는 차엔 문제없어요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CES에서 선보인 '미래 자동차'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 개막과 동시에 현지 언론에서는 CES의 'C'를 두고서 '이제 자동차(Car)를 의미할 수 있다'는 반응까지 내놨다. 그만큼 전자업계가 기대권을 쥔 행사에서 자동차 기업의 대대적인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들 대부분은 공통으로 혁신을 강조했다.

'AI 택배차' 목적지 도착하면 '2족 보행 로봇'이 물품 배달

◇산업 장려 파괴...그 중심에 자동차가 있다=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CES 2020의 최대 화두는 산업 영역의 파괴다.

전자기업이 디스플레이 다양성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에 나선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산업영역을 파괴하면서 다양한 이동성을 제시했다.

'전기차'라는 공통분모 위에 자율주행, 첨단 IT 기술, 항공 산업, 문화까지 아우르며 '미래 도시'의 모습을 그렸다.

일본 토요타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실제로 검증할 인공도시 구축을 공언했다.

자동차 회사가 인공지능 개발에 주력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미 토요타는 '무명배'를 짜는 자동직기를 만들던 회사에서 자동차로 전환한 사례다.

이들이 영역을 파괴하면서 전략도 구체

화했다. 청사진만 제시했던 이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최종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예컨대 미국 포드가 공개한 2족 보행 로봇이 대표적이다. 포드의 자율주행 택배차가 목적지 앞에 도착하면 여기서부터 2족 보행 로봇이 택배 상자를 들고 집 앞까지 배달하는 형태다.

현대차 없는 현대차 부스 미래 모빌리티 구름 관중

◇디스플레이 경쟁의 궁극점 역시 자동차=물체 자동차 디스플레이의 다양성을 점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도 공개됐다.

8K QLED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두께를 줄이기 위한 처연한 경쟁이 본격화됐다. 화면의 테두리가 없는, 이른바 '베젤리스' 기술도 속속 등장했고, TV 화면의 두께도 15mm 수준으로 얇아졌다.

슬림화 및 소형화 추세는 고스란히 가전

분야를 뛰어넘어 자동차 산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간이 제한적인 자동차 실내에 다양한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이어진다.

셋째 새로운 모빌리티 접근법도 나왔다. 현대차가 없는 현대차 부스에는 개막 첫날 4만5000여 명이 다녀가면서 미래 모빌리티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통해 교통 정체 구간을 피해 날아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상 운송 수단을 이용해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회사의 영역을 벗어나 항공 업계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헬리콥터 제조사 '벨(Bell)'은 항공 모빌리티용 수직이착륙기 '넥서스 4E'를 전시했다. 미래 도심 교통체증을 피해 날아갈 수 있는 비행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에서 참가자들이 현대차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S-A1'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에도 비슷한 콘셉트가 등장했는데 프로펠러 구성이 좀 더 단순해졌다. 시험 운행은 우버가 에어택시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진 2023년으로 못 박았다.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 시대 대비 차 앞 유리 '스크린' 활용 모색

◇엔터테인먼트와 자동차의 조화 눈길=이번 CES 2020에 등장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의 결합을 강조했다. 앞서 독일 아우디는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영화를 인수한 바 있다. 레벨5는 운전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다. 이동할 때 자동차 안에 앉아 있으면 앞 유리는 커다란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우디는 차 안에

서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행사에서 아우디는 자율주행차 'AI:ME'를 내세웠다. 교감하는 모빌리티 파트너를 지향하는 것. 집도 직장도 아닌 '제3의 생활 공간'으로 실내를 꾸렸다.

탑승자는 시선 추적 기능을 통해 차량과 직관적으로 소통하고 VR(가상현실) 고글을 쓰면 가상 비행을 즐길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이번 행사를 통해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의 조화를 추구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에서 영감을 얻은 자율주행차 콘셉트 '비전 AVTR'를 내놨다. 쪽 뺨은 '힐' 같은 모습에 실내가 흰색 보이게 투명한 외관, 뒷면에 파충류 비늘을 연상시키는 33개의 표면 요소 등이 아바타에서 다양한 생물체가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을 떠올리게끔 한다.

아바타만큼 운전자의 의도를 읽어내며 주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혼다는 운전의 재미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한 증강 운전 콘셉트카를 전시했다. 센서를 통해 차량이 운전자의 의향을 파악하고 자율주행 단계를 조절한다. 운전대를 두드리면 출발하고 당기거나 밀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이동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자동차에 속속 접목되고 있는 셈이다.

라스베이거스=김준형 기자 junior@

33개 자율주행 센서·와이드스크린 등 첨단 장비 장착

소니의 전기차 '비전-S' ... 양산 가능성 낮아

車산업 진출엔 잃는 게 더 많아 '완성차 아닌 부품 시장 출사표'

CES 2020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일본 전자업체 소니(SONY)였다.

엔터테인먼트와 게임기, 광학기기 등을 만드는 소니는 이번 행사에 전기차 콘셉트카 '비전-S'를 내놨다. 차 이름도 전기차 시대를 겨냥한 '소니의 비전'을 뜻한다.

소니비전-S는 차안팎의 33개 센서로 주변 환경을 감지한다.

운전석과 동반석 앞쪽에는 와이드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깔았다. 오디오로 이름난 소니의 명성에 어울리게 정교하고 세밀한 오디오 음향도 구현해 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전시장에 내놓도 팔릴 법한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정말 소니가 이 콘셉트를 바탕으로 양산차를 내놓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산 가능성은 극히 낮다.

2010년대 들어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전동차로 빠르게 이동했다. 글로벌 전자기업 가운데 일부도 자동차 산업 진출을 공언했다.

전자기업이, 예컨대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자기업을 인수할 때면 여러 전문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삼성전자의 자동차 시장 진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기업의 자동차 산업 진출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은, 커다란 '약수' 가운데 하나다. 일단 시장 장악이 어렵다. 이미 연간 9000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30여 개 브랜드가 치열

하게 경쟁 중이다. 자동차를 팔려면 공장도 지어야 하고 판매망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서비스망은 필수다.

그 대신 기술력을 앞세워 부품을 개발하면 9000만 대 시장에 단박에 뛰어 들 수 있다.

결국, 여러 전자기업이 자동차 산업 진출을 공언했다가 백기를 들고 투항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이름난 전자기업인 '다이슨'이다.

진공청소기로 이름난 다이슨은 "전기 모터 하나는 우리가 끝내주게 만든다"며 2017년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언했다. 투자금도 3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2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전기차 시장 진출 포기'를 선언했다.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은 "추가 투자를 위해 투자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



일본 전자기업 소니가 자율주행 기반의 전기차 콘셉트 비전-S를 선보였다. 양산차 시장에 뛰어 들겠다는 게 아닌, 이 안에 들어간 첨단 전자장비를 앞세워 완성차 부품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겠다는 전략이다. 사진제공 CES 2020 미디어

했다"며 시장 진입 의지를 접었다.

상황이 이런데 소니가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콘셉트를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첨단 전자부품을 팔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소니의 이번 CES 2020 전시 전략이 주요했다. 상상 속에 존재할 만한 '콘셉트카'를 내놓았다면 오히려 세

간은 시큰둥한 관심을 보였을 테지만 양산차에 가까운 디자인을 내놓은 게 주요했다. "소니가 자동차 시장에 뛰어 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포장한 셈이다. CES 2020 전시 전략에서 가장 성공한 브랜드는 삼성도 현대차도 아닌, 바로 소니였다.

라스베이거스=김준형 기자 junio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리브모바일! 통신생활을 쉽게 바꾸다



새로운 모바일의 시작



통신사, 리브모바일로 바꾸고 놀라운 통신생활 누리세요



세상 놀라운 요금제
LTE 및 5G 파격적 요금 할인



세상 간단한 가입절차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유심만 꽂으면 가입 끝



세상 쉬운 금융인증
모바일 인증서가 유심안으로! 갱신없이 인증

**LTE 무제한 요금제
반값 할인 이벤트**

- 행사기간 : 2019.12.16(월)~2020.2.29(토)
- 대상 : Liiv M 무제한(11GB+) 요금제 가입고객
- 방법 : 행사기간 중 무제한(11GB+) 요금제 가입 시 자동 적용
- 혜택 : 무제한(11GB+) 요금제 개통월 포함 12개월 반값 할인 (월 44,000원 → 월 22,000원)

*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본 이벤트는 다른 할인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Liiv M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점직원 또는 Liiv M 고객센터(1522-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2061-2호(2019.12.23), 광고물 유효기한 2020.02.29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많은 부작용 낳을 것”

‘법원 내부고발 1호’ 신평 변호사

기소배심제·조서작성 폐지 등으로 검찰 권력 전제 가능 “윤석열, 정치적 야심 있어 ... 강력한 대선 후보 될 수도”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에 만족하지 않을 것, 반드시 다음 대선에 나갈 것이라고 본다.”

1993년 판사와 변호사의 돈 거래를 폭로했다가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한 ‘영원한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사진)의 전망이다.

13일 서울 광화문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나오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때보다 훨씬 강한 구심력을 가지며 급부상할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 최근 ‘윤석열 검찰’하에서의 수사를 지켜보던 그가 내린 결론이다. 신 변호사는 “사실 어느 정권이든 선거를 앞두고는 그렇게 해왔는데, 윤 총장은 이것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야심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2018년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됐다. 진보 인사로 분류되던 신 변호사는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날 오전 사법농단 사건 ‘첫 판결’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여론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이 넘어가는 게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신 기소배심제 △조서작성 폐지 △법외폭죄 같은 다양한 법·제도 신설을 통해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신평법률사무소와 공정세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시인이자 수필가로 등단한 작가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사법농단에 맞서는 현실 법정극 ‘법원을 법정에서 세우다’를 무대에 올렸다. 앞으로 웹툰과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사법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법 피해자를 돕는 일에 힘쓸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 서형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기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서형수(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김기표(오른쪽)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했다.

서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냈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1대 총선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과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정일환 기자 whan@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월 수상자
홍승갑 수석연구원·최종기 소장

한국계 조니 김, NASA 달·화성 탐사 우주인에 포함

의사·네이비실 등 독특한 이력...2년 걸친 훈련 끝에 선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화성 탐사 계획(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임무를 맡게 된 새 우주비행사에 한국계 의사 출신이 선발됐다.

12일(현지시간) NASA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임무를 담당할 새 우주비행사 1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 조니 김(사진)도 포함됐다. 그는 로스앤젤레스(LA) 북서쪽 샌타모니카에서 고교를 마치고 샌



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UC샌디에이고),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 제후병원과 보스턴 등에서 종합병원 의사로 일하던 그는 해군 특전단(네이비실)에 입대해 특전훈련을 소화했고 컴배트V 실버·브론즈 메달을 받았다.

2017년 NASA에 들어간 그는 약 2년에 걸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훈련 끝에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 이번 우주비행사 선발 지원자 수는 1만8000여 명으로, 1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박영선, 다보스포럼 이사직 맡아...국내 장관 최초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의 이사직을 맡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박 장관이 세계경제포럼의 초청으로 21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은 1971년 시작됐고 전 세계의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정치인,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제 민간기구다. 포럼에서 박 장관은 선진제조 및 생산(Advanced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AMP) 이사회의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연장도 가능하다. AMP 이사회는 제조혁신 분야에서 세계 주요 정부 및 기업의 리더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장관이 다보스포럼의 이사직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김현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무역과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Trade and



Global Economic Interdependence) 이사로 위촉된 적이 있다.

박 장관은 21일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제조혁신’ 회의에 참석해 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중기부의 중소기업 전용 제조 데이터 센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김영훈 회장, 17년 연속 참석

김영훈(사진) 대성그룹 회장이 21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50회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김 회장은 2004년 이후 17년째 다보스포럼에 참석해왔다. 올해에도 다보스에서 논의되는 정치, 경제, 에너지 등 여러 분야 글로벌 트렌드와 현장에서 느낀 소회 등을 개인 블로그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결속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for a 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월 수상자로 홍승갑(왼쪽 사진) 포스코 수석연구원과 최종기(오른쪽) 진영티비엑스 기술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인 홍 수석연구원은 발전소용 고효율 스테인리스강 조판용접 기술을 개발해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판용접은 강판을 원형관 형태로 만들 때 이음매를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국내에 해당 기술이 없어 발전소용 고효율 스테인리스강 소재(튜브)는 주로 일본 업체에서 수입해 썼다.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인 최 소장은 300메가와트(MW)급 발전용 가스터빈 블레이드를 국산화해, 수입대체 효과와 원가절감을 거둔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부음

▲김일욱 씨 별세, 이장원(신한금융투자 채권운용부 부장)·순원 씨 모친상, 김관목(코트라 실장) 씨 장모상, 박민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책임연구원) 씨 시모상 = 12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010-2746-9846

▲안진순 씨 별세, 김영섭(전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영희(전 상주시 새마을과장)·영진(BNF테크놀로지(주)부사장)·영훈(포항대학교 교수) 씨 모친상, 이원식(전 해인중학교 교장)·석순기(인포콘 대표) 씨 장모상 = 12일, 경북 상주시 제일장례식장 5층, 발인 14일 오전 8시, 054-531-4411

▲김지현 씨 별세, 이희진(브라운앤뉴 대표) 씨 부인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20분, 02-3010-2295

▲이연우 씨 별세, 이세중(텍코리아 대표)·란주(가온협동조합 이사)·상근(켄닥터 대표) 씨 부친상, 이원희(스타뉴스 스포츠부 기자) 씨 조부상 = 12일, 포항시민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054-253-4444

▲서석인 씨 별세, 서병수(전 부산시장)·하수(부일석유 대표)·현수(부일여객 대표)·범수(전 경찰대학장) 씨 부친상 = 13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5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51-711-4400

넷마블, 이승원 대표 내정

넷마블은 글로벌 담당인 이승원(사진) 부사장을 신임 대표에 내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넷마블은 기존 권영식 대표 체제에서 권영식·이승원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이승원 신임 대표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 신문학과, 프랑스인시아드 경영대학원



(MBA)을 거쳤다. 야후의 한국 마케팅 이사를 거쳐 2007년 넷마블에 입사해 해외사업 본부장, 글로벌전략실 상무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넷마블 글로벌담당 부사장에 임명돼 그동안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대에 기여해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인사

◆국회(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고상근 △기획조정실장 홍형선 △이사관 승진 △관리국장 여영준 △국회사무처 관혁준 △국회사무처 박규찬 △국회사무처 정경윤 △국회사무처 정대영 △국회사무처 최병권 △경호기획관 최오호 △이사관 전보 △의정연수원 교수 김상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균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아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위원 허병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선준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신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주 △국회사무처 이지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철 △부이사관 전보 △정보위원회 임법심의관 김사우 △여성가족위원회 임법심의관 상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법심의관 임명현 △국회운영위원회 임법심의관 정명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임법심의관 정홍진 <국회입법조사처> △이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장 오명호 △부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의관 강대훈 <국회도서관> △이사관 전보 △의회정보실 의회정보실장 이신재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실장 노우진 △부이사관 전보 △정보통신국 정보통신국장 김경혜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장 박미향 △이사관 전입 △기획관리실 기획관리관 김경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보 △홍보실장 이준석 △혁신전략실장 이병철 △경기남부지

부장 임동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부사장 겸 기획전략이사 전승주 △수자원관리이사 이상엽 △경영지원 겸 농지관리이사 권기봉

◆한국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 이윤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혁신소통팀장 성인경 △홍보팀장 변미영 △부원장 직속 △시설안전관리팀장 조은동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정진규 △공정생산지원팀장 박승준 △경영지원본부 △인사팀장 이원희 △재무팀장 임규복 △정보보안팀장 신화범 △심사평가팀장 유영진 △기업·인재양성본부 △기업육성팀장 박인남 △인재양성팀장 김희숙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장 연재혁 △문화기술개발팀장 이재은 △정책본부 △미래정책팀장 송진 △산업정책팀장 박혜대 △정책금융팀장 백승혁 △게임본부 △게임산업팀장 광성환 △게임유통팀장 김문경 △방송본부 △방송산업팀장 이도형 △방송유통팀장 김정욱 △대중문화본부 △애니캐릭터산업팀장 장인걸 △만화스토리산업팀장 박정연 △음악패션산업팀장 이해은 △해외사업본부 △콘텐츠수출팀장 이정은 △한류사업팀장 김기현 △지역사업본부 △지역콘텐츠팀장 김성준 △실감콘텐츠팀장 유운욱

◆서민금융진흥원 △전보 △팩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황재호 △임명 △홍보협력실장 김소연

◆서울문화재단 △전보 △감사실장 한지연 △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문화사민본부장 백승우 △예술교육

본부장 김해보 △창작기반본부장 직무대리 남미진 △극장운영실장 우연 △경영기획팀장 서명구 △인사팀장 정일환 △재무회계팀장 주한식 △시설계약팀장 백성운 △홍보IT팀장 이규승 △예술기획팀장 최재훈 △예술지원팀장 김유진 △예술경영팀장 김영호 △지역문화팀장 김진환 △생활문화팀장 우상욱 △축제팀장 이현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팀장 조동희 △시민정팀장 김희영 △예술교육팀장 나희영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팀장 직무대리 한민지 △울산예술교육센터팀장 장재환 △기획제작팀장 직무대리 도재형 △청년예술청 매니저 배소현 △삼각산시민정 매니저 김민수 △울림예술TFT 매니저 이정훈 △신당창작아카데미 매니저 김상원 △서울무용센터 매니저 정경미 △서교예술실험센터 매니저 황현정 △잠실창작스튜디오 매니저 이승주

◆미래에셋대우 △팀장(신인) △IR팀장 서창권 △Global혁신팀장 최정민 △Global시너지팀장 김만제(전보) △홍보팀장 이남주

◆IBK투자증권(보임) △본부장 △금융상품본부장 김기연 △법인영업본부장 허경량 △강북영업본부장 김성근 △강남영업본부장 손관 △서부영업본부장 이상섭 △영남영업본부장 김성범 △센터장 △영업부장 백기억 △IBK WM센터 중계동센터장 이영훈 △IBK WM센터 역삼센터장 유유신 △부/실장 △영업추진부장 이두희 △스마트금융부장 정장석 △팀장 △부동산금융1팀장 정철운 △부동산금융2팀장 김진관 △경영관리팀장 권오현(승진) △상무부 △프로젝트 금융본부장 백동훈 △채권영업팀장 박진영 △중

소기업분석부장 유육재 △감사실장 박양수 △이사 △대구센터 배성원 △IBK WM센터 역삼센터장 유유신 △구조화금융1팀장 김성환 △인사부장 김주영 △경영기획실장 현진길 △부장 △노조위원장 이상용 △IBK WM센터 강남센터장 김용주 △IBK WM센터 반포자이센터장 허은진 △영업추진부 이원형 △FICC운영팀장 문정훈 △IBK금융팀 관철수 △종합금융2팀 정철운 △재산신탁팀장 이소라 △리스크관리부장 한종숙 △차장 △영업추진부 서정석 △IBK WM센터 창원센터장 윤성근 △법인영업1팀 최준주 △금융상품영업팀 강재정 △부동산금융2팀 김원영 △종합금융1팀 김환희 △IPO1팀 이시우 △IBK기업금융1팀 이종훈 △전략기획팀 이정훈 △투자분석부 박옥희 △컴플라이언스팀 유재규

◆아주캐피탈 △리테일금융본부 지점장 △부산지점장 김한수 △서울지점장 허찬수 △경인지점장 이상범 △광주지점장 구본탁 △채권본부 센터장 △경인센터장 이우관 △강북센터장 전용수 △충청센터장 장희성 △커머셜금융본부 영업소장 △광주커머셜영업소장 최영현 △경인커머셜영업소장 이규성 △부서장 △커머셜금융팀장 강동수 △채권관리팀장 이승호 △채권기획팀장 구민우 △인사노무팀장 배규정 △준법감시팀장 김정준

◆bhc그룹 △전무 승진 △경영지원본부 CFO 허명수 △상무 승진 △지원사업본부 연구소 김충현 △부장 승진 △가맹사업본부 김정열 △가맹사업본부 오승우 △지원사업본부 마케팅팀 김지현 △지원사업본부 재무팀 정승원 △지원사업본부 홍보팀 김동환

추창근 칼럼



논설실장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다시 '평화경제'를 강조했다. 나아가 김정은의 남한 답방까지 거론했다. '비핵화'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의도적인 독자 노선의 천명이고, 북핵을 용인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 북의 핵 포기 없는 평화경제는 본말전도(本末顛倒)의 모래성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 일인가?

북한 비핵화는 결국 헛꿈으로 굳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고집한다면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경고했다. 이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11일 담화를 통해 "유엔 제재와 핵시설을 맞바꾸는 협상은 다시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북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새삼스럽지 않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스스로 그것을 되돌린 전례는 없다. 핵은 모든 재래식 무기의 우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다. 북은 지난 30년 경제 파탄과 수백만 인민이 굶어죽는 고난을 버티면서 핵을 완성하고 고도화했다. 실제로 쓰지 못해도 핵보유국 지위만큼 유리한 협상력은 없고 가장 강력한 위협이다. 3대 세습 김정은 정권을 지키는 확실한 생존무기이기도 하다. 북이 말하는 비핵화는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원하는 것을 챙기고, 또 다른 무엇을 끊임없이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미끼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지렛대로 김정은과 세 번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차례 만남도 이뤄졌다. 거기까지였다. 합의는 휴지조각이고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의 목표도 흐지부지다. 김정은은 비핵화의 시늉으로 눈속임해 어떻게든 제재를 풀려 했지만 열쇠를 쥔 미국은 넘어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다시 '평화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내세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북관계 진전과 경제협력의 속도를 내고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이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로 새로운 한반도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등도 거듭 주장하고, 나아가 김정은의 남한 답방까지 거

론했다.

'비핵화'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의도적인 독자 노선의 천명이고, 북핵을 용인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북에 대한 구애(求愛)는 끝이 없다. 하지만 그동안 대화와 협력을 말할 때마다 무시당하고, 북이 쏟아낸 수도 없는 조롱과 모욕적인 막말은 옮기기조차 민망하다. 북은 작년 한 해에만 13차례의 초대형 방사포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고 강변했다.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북의 직접 공격이 없었으니 그게 평화라는 건가?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은 원대하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이 핵심이다. 환동해권과 환서해권, 남북 접경지역 등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하나의 시장',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든다는 꿈은 장밋빛이다.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으로,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경제협력을 통해 번영과 평화의 선순환을 이루는

길, 우리의 둘도 없는 희망이자 최선의 미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전제가 북의 비핵화다. 북의 핵 포기 없는 평화경제는 본말전도(本末顛倒)의 모래성이다. 무엇보다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은 협력 쌍방의 이익이 보장되는 자유거래의 경제원리와 시장경제 질서가 통용되거나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게 안되면 협력이란 이름의 김정은 통치자금 퍼주기이고, 과거 그랬듯 돈만 갖다 바치면서 평화를 사지 못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북한에 대한 본질적인 의구심이다.

북의 핵 포기가 없다면 평화경제란 또한 양립할 수 없는 허상(虛像)이다. 지금 북핵 위협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가 앞장서 유엔 제재의 질서를 뒤엎고 국제 공조의 의무와 책임을 팽개치는 경험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말 이래도 되는 일인가? 핵을 머리에 이고, 북이 책동하는 일상적 위기의 살얼음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위협받아야 하는 치명적 현실이 암담하다. kunny56@

정책발언대



이재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람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구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커져갔다. 생명이 위태로운 국민이, 아픈 국민이, 안전한 일상이 필요한 국민이 내미는 그 간절한 손길을 꼭 붙잡겠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오영환 전 소방관의 입당 소감 중 일부다. 오 전 소방관은 소방관 출신 공무원 가운데 최초로 정치권이 영입한 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그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의 인력과 처우에 차이가 발생했고, 결국 이는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초래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를 떠올려 보자. 소방의 초기 대응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먼저 발생한 다른 사고 현장 출동으로 소방인력이 부족했던 현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얼마 전에는 충북 지역에서 어린아이가 안마의자에 끼어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 또다시 골든타임의 문제가 지적됐으나, 이 역시 동시 출동이 불가능한 지역 소방 여건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방체제는 균형 있는 대국민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민안전권을 사명으로 하는 소방관들의 숙원 중의 하나였다. 특히 우리 헌법이 국민 안전 보호의 1차적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이에 나는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대 국회의원이 되고 1호 법안으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들을 대표발의했

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이라 불렸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한 법안이었다.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법안을 국회 논의 테이블에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순위를 협상하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렵게 법안 심사가 개시되고 나서도 수많은 이견을 풀어내야 했다. 여야의 이견과 대치로 논의 자체가 좌초될 위기도 수차례 겪었다.

하지만 그 고비마다, 국민의 응원과 성원이 쏟아졌다. 이렇게 4년여에 달하는 분투 끝에 지난해 11월,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이 국회를 움직인 결과다.

이제 다가오는 4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전국의 소방안전 대응 역량을 골고루 향상시켜 모든 국민에게 균질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종 재난상황에서 국가 대응체계와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국

민의 영웅, 소방관의 처우 또한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를 넘어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고개 하나를 넘은 것일 뿐이다.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이 많다.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청 조직 및 기능 개편, 시·도 소방조직 일원화 및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추가 재원의 확보와 관계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형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휘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소방공무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위해 국가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이유다.

누구 못지않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격려와 칭찬은 혼자 받을 것이 아니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일선 소방관들의 희생과 이들을 향한 국민의 공감과 응원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다. 이제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과의 약속 2라운드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명언

"배신은 우정의 양념이다. 그것도 후추나 겨자처럼 자극적인 향신료다. 배신의 요소도 그 위험성도 깔려 있지 않은 우정이 싱겁다고 느껴질 때, 한 사람의 독립된 어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소설가. 본명은 히라오카 기미타케(平岡公威). 그는 전후세대의 니힐리즘이나 이상심리를 다룬 작품을 많이 썼다. 대표작은 '금각사(金閣寺)', 마지막 작품이 된 '풍요의 바다' 등이 있다. 40편의 장편 소설, 18편의 희곡, 20편의 단편집, 20여 편의 에세이집을 남긴 그는 노벨문학상 후보로 세 차례나 거론되었으나, 자위대 본부에 난입해 평화헌법을 뒤엎는 쿠데타 촉구 연설을 한 뒤 할복자살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25~1970.

☆ 고사성어 / 인면수심(人面獸心)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거나 행동이 흉악하고 음탕한 사람을 일컫는다. 후한(後漢)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열전(列傳) 흉노전(匈奴傳)에 나온다. 반고의 흉노 묘사. "오랑캐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며,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夷狄之人 髮髮左衽 人面獸心]."

☆ 시사상식 / 캐시그랜트 (cash grant)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금 감면만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법인세를 인허할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도입됐다.

☆ 우리말 유래 / 감낭

지니고 있는 힘의 정도.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을 말한다. '감'의 원말은 '감'으로, '사윗감', '반장감'처럼 어떤 자력에 알맞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박종화 부동산부/pbell@

'월간 흥남기' '주간 김현미'

의 효과는 길게 말하기도 민망하다.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너댓 달 후면 집값이 귀신같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시장에서 살 만한 집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대개 '여유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대책으로 답했다.

대책들 사이 아귀도 영 맞지 않는다.

2017년엔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한다며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내놓더니 지난해엔 그나마 있던 혜택도 없애거나 줄였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핀셋'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서울지역 70%를 분양가 상한제로 묶었다.

주택 보유자나 수요자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만 믿고 집을 사고팔았다간 손해 보기 십상이란 게 부동산시장의 여론이다. 다주택자 사이에선 '장관이 집 팔라고 했을 때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란 무용담이 나온다.

부총리, 장관은 가수가 아니다. 정책이 임상시험이 돼서도 안 된다. 이런저런 뒤죽박죽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책 효과는 커녕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달마다 주마다 대책을 내놓다가, 끝내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는 내성이 생길지도 모른다. 정책엔 다작보다 시장에 믿음을 줄 수 있는 '한 방'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한 방이라면 5년에 한 번 나온들 나무랄 사람 없다.

한국 가요계에서 '다작 가수' 하면 단연 윤종신이 꼽힌다. 2010년 3월 '월간 윤종신'을 내기 시작해 9년 넘게 다달이 음반을 내고 있다. 윤종신은 월간 윤종신에 대해 여러 음악에 대한 관객 반응을 살피는 '임상시험'이라 했다.

정부세종청사에도 다작 부총리, 다작 장관이 있다. 흥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문재인 정부 31개월 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은 18번. 한 달 반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꼴이다. 자잘한 세부 대책을 합하면 부동산 대책은 더 늘어난다. 투자자들은 '월간 흥남기', '주간 김현미'란 말까지 만들어 이죽댄다.

문제는 월간 흥남기, 주간 김현미엔 들어줄 만한 곡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대책

이투데이 logo and address information

Table with staff information: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and contact details for various departments.

이주열의 '사상누각'

〈沙上樓閣〉

#장면 1. "올해 가장 큰 고민은 노조(노동조합)다."

#장면 2. "중앙은행 건물은 단순히 하나의 공공기관 건물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격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략) 동시에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중앙은행인들의 일터를 만드는 역사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장면 3. "조직과 인사 운용체계, 업무 방식을 중앙은행의 새로운 미래상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면 1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몇몇 외부 인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다.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경제상황도 통화정책도 아닌 노조를 들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이를 전한 지인의 말이다.

이 총재와 한은 노조 집행부는 이 총재 재임 내내 꺾거리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가장 극명하게 대치했던 때는 지난해 금융결제원장에 당시 A 부총재보를 앉히려 했던 때다. 한은과 금융결제원 노조는 물론이거니와 이들 상급 노조단체들까지 반대에 나선 것이 A 부총재보의 결재원장 좌절의 이유 중 하나가 됐다.

이 때문인지 이 총재에 대한 내부 평가는 박하다. 2018년 초 연임을 전후해 한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55%)은 이 총재 연임에 부정적이었다. 특히 내부경영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7명(67%)은 부정적이라고 답

데스크칼럼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했다. 지난해 말 블라인드(blind) 앱에 올라온 두 차례의 총재 평가와 관련해서는 각각 75%가량이 '매우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자 설문 중간에 내용이 내려졌다.

내심으로야 노조 집행부를 미워할 수 있겠다. 또, 통상 누군가를 치켜세우고자 할 때 평상시 발휘되는 이 총재 특유의 화법이 180도 바뀌어 나온 말일 수도 있다.

다만, 한은 노조위원장 역시 한은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인물이다. 내부 신망 면에서는 이 총재보다 앞선다 할 수 있다. 임기도 이 총재 임기와 유사하다.

장면 2는 역시 이 총재가 지난해 12월 24일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기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말이다. 그로서는 가슴 벅찬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게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무려 2년 여를 끌어오다 이제 첫 삽을 뜨게 됐으니 말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 6월 한은 창립 70주년에 맞춰 완공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통합별관 완공일이 2022년 3월 23일이라는 점이다. 이 총재가 임기만료

를 이유로 퇴임하는 2022년 3월 31일에 불과 일주일 앞선다. 착공식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말까지만 해도 한은은 완공일을 2022년 4월로 공지했었다.

그렇잖아도 시공사 계통건설 선정을 두고 한은 안팎에서는 의혹의 눈초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조달청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해명만으로 밀어붙인 계통건설과의 계약과 한 겨울철 서둘러 시작한 공사는 뒷맛이 남을 수밖에 없다.

백년 양보해 그간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총재가 임기 내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았을 수 있다. 반면, 이 총재 치적을 위해서라면 사정은 다르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과거 권력자들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졸속으로 건설했던 건물들이 어떠한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총재의 말처럼 100년을 준비하는 일터가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

장면 3 또한 이 총재가 2일 신년사를 통해 한 말이다. 한은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은 '비전 2030'을 준비 중이다. 미래 환경변화를 내다보고 이에 맞춰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취지다.

다만 장면 1·2에서 보듯 이 총재는 경영과 통합별관 건축이라는 내·외부건설부터 사상누각(沙上樓閣)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총재 스스로 했던 말처럼 "미래상에 부합하는 재설계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총재부터 가져주길 당부드린다.

kimnh21c@

사설

20대 후반 실업자 최대, 기업활력 쇠락의 증거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에서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7년째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3일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실업자에서 25~29세 실업자의 비중이 21.6%로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덴마크(19.4%), 3위는 멕시코(18.2%)였고, 미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13.0%, 일본 12.6%, 독일 13.3%에 그쳤다.

특히 한국은 15세 이상 가운데 20대 후반 인구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5명 중 1명이 이 연령대였다. 20대 후반 실업자 비중은 2011년까지만 해도 그리스와 슬로베니아가 가장 높았으나, 2012년 이후 7년 연속 한국이 최고를 기록했다. 그리스는 경제 파탄으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이고, 슬로베니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가 역성장했다.

25~29세는 주로 대학 졸업 후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연령대다. 이들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특히 심하다.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 청년들이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 취업을 원하면서 실업상태가 유지되는 경향이 많고, 또 기업 입장에서 대졸 초임이 높고 해고 등 노동유연성은 낮아 신규고용을 꺼리는 탓이 크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최고의 실업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의 작년 11월 고용통계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0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86만6000명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령대 고용률은 44.3%이고 실업률이 7%였다. 하지만 청년층 확장실업률을 뜻하는 고용보조지표 3은 20.4%다. 여기에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일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청년층 다섯 사람 중 한 사람이 사실상 실업자라는 얘기다.

어떤 통계의 분석으로도 우리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청년 인구 감소세를 똑같이 겪고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그렇다. 결국 경제활력의 저하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 성장이 정체되고 기업의 확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규 인력 수요와 채용이 줄어 20대 후반의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 있다. 세금 쏟아부어 공무원 늘리는 임기유연성 단기대책으로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효과도 없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낸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방적 노동편향에, 규제의 거미줄로 기업의 숨통을 막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욕을 꺾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구성현의 약자지결

자본시장1부 차장



낙하산 인사와 그들만의 리그

이해제됐다.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영 회사가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예탁결제원 역시 공공기관이지만 최대 주주는 한국거래소다.

이들 조직은 형식상 공모로 수장을 뽑고 인사추천위원회를 갖추고 있지만 말 그대로 형식에 불과할 뿐이다. 때문에 "이왕 낙하산이 올 거라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다. 야당일 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정당이나 정부도 막상 정권을 잡게 되면 낙하산 인사를 적극 활용(?)할 뿐 이를 바꾸거나 개혁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달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예탁결제원 사장만 하더라도 그렇다. 예탁결제원은 후임 사장 공모 결과 이명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등 총 5명의 후보자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출신이자 여당 유력 인사인 이 수석전문위원이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반발한 제해문 예탁결제원 노조위원장이 사장 공모에 지원하며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사의 특성상 '이슈몰이'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염연히 주인이 존재하지만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돼야 할까.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서 자본 시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십여 년째 주가 지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금융투자업계는 과거 정부의 외압을 이기고 협회장 선출권을 찾아온 역사가 있다. 다른 기관들과 달리 금융투자협회는 거래세 인하 등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던 현 정부의 모토를 복기하면 지금 금융투자업계에서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는 납득하기 힘들다. 진정한 금융투자업계의 개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치 사슬을 끊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경영자를 선임해야 한다. 정부부처를 퇴임한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지하는 기관장 자리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모두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늦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carlove@



절제·이식으로 되찾는 간 건강

간암의 외과 치료는 간절제술과 간이식으로 나뉜다. 수술적 치료는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간암 치료방법 중 하나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간암의 개수, 크기 및 위치, 간 기능의 상태, 환자의 연령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간절제술에서 복강경 수술이 활용된다.

암(종양)이 위치한 곳을 일부 잘라내는 간절제술은 간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암세포가 일부에 국한돼 있으며, 간경변증이 심하지 않거나 암세포가 혈관을 침범하지 않았을 경우 시행한다. 간암은 악화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간절제술이 가능한 정도로 초기에 진단되는 것은 쉽지 않다. 1980년도 이전 국내 간암수술의 사망률은 50%에 가까웠으나 의학기술의 현저한 발달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망률이 약 1%로 매우 낮아졌다. 간경변의 상태와 간절제 범위가 수술의 성공률을 좌우하는데, 종양

만 일부 절제하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만 절제범위가 큰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간이식은 심각한 간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정상인의 간을 옮겨붙이는 수술로, 기존의 손상된 간을 100% 제거하고 새로운 간을 제공해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간이식은 간경변증과 간암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간외 전이가 없으며 종양 크기가 작고 개수가 적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간암에서 간이식의 효과는 높은 편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80% 정도나 된다. 간이식은 뇌사자간이식과 생체부분간이식으로 나눌 수 있다. 뇌사자간이식은 뇌사자의 간 전체를 절제해 이식하는 방법이고, 생체부분간이식은 살아 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해 수혜자에게 이식한다. 국내에서는 뇌사자간이식 기증자가 부족해 가족, 친척에 의한 생체부분간이식이 많이 이뤄진다. 김범수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간담도내과장과 교수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준법감시인확인필 제19-1-0565호
(브랜드전략파트, '19.12.16)

요즘 시대, 걸으면 걸을수록 보험료도 내려가는 시대

걸으면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삼성화재 애니핏으로
보험료 결제는 물론,
다양한 상품 서비스 구매까지
삼성화재 포인트 몰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일상에 건강은 기본, 다양한 혜택까지 더한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365일 당신의 걷기 파트너

삼성화재 건강보험
피보험자 누구나

걸기만 해도 쌓이는
애니포인트
*걸음수 목표 달성시 1년 최대 6만원



플레이스토어 혹은
QR CODE를 찍고
애니핏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적립한 포인트로
보험료 결제



전용 포인트몰에서
다양한 물품 구매

*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을 참고해 주세요.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